

통합치료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통합치료학회

한국통합치료학회 임원진

회 장 : 홍혜영(명지대학교)

부 회 장 : 문소영(명지대학교)

총 무 : 정은정(명지대학교)

편 집 위 원 회 : 선우현(명지대학교) 노남숙(명지대학교) 최예린(명지대학교)
손보영(선문대학교) 이상진(평택대학교) 박정환(제주대학교)
서근원(대구카톨릭대학교) 이아라(경상대학교) 임지숙(명지대학교)

국제교류위원회 : 심혜원(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서미진(호주기독교대학교)

윤 리 위 원 회 : 조민자(명지대학교) 이상은(명지대학교) 윤정숙(이화여자대학교)

홍 보 위 원 회 : 이은경(명지대학교) 최정현(서울문화예술대학교)

학 술 위 원 회 : 김은연(명지대학교) 강순미(백석예술대학교)

학제 간 연구위원회 : 최광현(한세대학교) 최명선(명지대학교) 양심영(송의여자대학교)

간 사 : 정혜전 박소희 남승지

감 사 : 한영주(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박은선(명지대학교)

<차 례>

-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및 자기분화가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
안지선·김진이 5
- 보육교사를 위한 인형치료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염창현·선우현 27
-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대인존개감의 매개효과
- 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 -
허민영·홍혜영 55

<별첨 1> 통합치료연구 연구 윤리 관련 규정 / 87

<별첨 2> 투고규정 / 90

<별첨 3> 논문 작성 요령 / 92

<별첨 4> 한국통합치료학회 회칙 / 99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및 자기분화가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

안지선*·김진이**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평택점·연세대학교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및 자기분화가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경기 지역 3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초등학생 571명이었으며 연구수행은 2011년 2월 7일부터 2월 11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자기분화가 아동의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이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하고 아동의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관계기술인 주도성 기술과 협동/공감 기술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5, 6학년 시기의 아동의 특성을 인식하고 또래관계기술을 잘 형성하기 위해서 가족 내에서의 역할의 중요성과 내적인 성숙인 자기분화의 수준을 증가시키는 접근법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

주제어 : 또래관계기술, 또래관계, 아동, 가족건강성, 자기분화

* 본 연구는 안지선(2011)의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요약한 논문임.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아동가족상담센터 센터장, 김진이(jiny29@korea.com)

■ 게재 신청일 : 2020년 1월 07일 ■ 최종 수정일 : 2020년 2월 17일 ■ 게재 확정일 : 2020년 2월 18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평생 동안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간다. 생의 초기에는 가정에서 부모-자녀관계가 형성되고 성장함에 따라 또래관계, 교사-제자관계 등으로 확대된다. 아동은 이러한 대인관계를 통해서 인지적, 정서적, 도덕적 발달과업을 이루며 사회적 기술을 학습한다. 특히 아동기 후기 또는 청소년 전기에 해당하는 5, 6학년 시기의 아동은 또래에 대한 관심과 또래 동조성이 증가하는 시기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은 친구를 사회적 준거로 삼아 자신을 평가하여 자아를 이해하며 정체성이 형성되기 때문에 또래관계는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이다(이은해, 고윤주, 1999).

현대 사회에서는 출생률 저하로 인하여 형제관계가 감소하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시설에 위탁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서 아동은 이른 시기부터 또래관계를 경험하게 되었다(이은해, 1999). 또한 학교 수업 외에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동은 또래들과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증가되어 또래와의 관계에 많이 노출됨에 따라 또래관계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아동이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맺기 위해서는 적절한 또래관계기술이 필요하다. 아동이 다른 또래와 놀고 싶고, 놀이에 참여하는 데에 적절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다면 아동은 또래들로부터 수용되기 힘들 것이다(박진재, 2001). 따라서 타인과 협력하는 기술, 자신의 생각을 상황에 맞게 표현하고 나타내는 기술,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기술 등은 매우 중요하다(김순자, 조용태, 1998). 이러한 또래관계 기술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적응을 잘하는 경우에는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즐거움과 정서적 지지를 획득하고,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강화되며(문무경, 2005), 자존감이 높아지며, 학교에 소속감을 가지고,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고선영, 2018). 반면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경우 아동은 외로움(노기범, 2016), 공격성(이지영, 2014), 부정적 자존감, 정서불안, 사회적 위축 등의 심각한 정서적 장애를 경험하고 이후에 청소년이나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청소년기에 학교를 중퇴하거나 사회적 낙오, 비행, 정신병리, 반사회적 행동 및 성격장애를 예언한다고 보고되고 있다(Parker & Asher, 1987). 이와 같이 아동이 또래관계기술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또래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면 아동기뿐 아니라 이후의 청소년기 및 성인

기의 사회적 적응과 심리적 안녕감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긍정적이고 원만한 또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또래관계기술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기 후기인 5, 6학년은 심리적인 독립심이 발달하는 시기로 부모에게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의견과 생각이 뚜렷해지고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를 동시에 가지게 되므로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의 두 가지 측면에서의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혜진, 2014). 아동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외적 요인으로는 가족환경을 생각할 수 있다. 가족은 인간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데에 있어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자 최초 교육의 장이며 인간형성에 가장 중요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 기본적인 체계이다(최경원, 2010). Medinnus(1970)은 가정을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단위로 성장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족들과의 상호작용 관계가 아동의 성격형성 및 정신건강과 정서발달 등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인간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신체적, 사회성 등이 발달하고 성인이 되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부모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다(박경희, 2013). Belsky(1981)는 가족을 일차적인 사회체계로 보고 가족원간의 관계가 상호적 영향을 통해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개인에게 대인 관계가 형성되는 최초의 집단은 가족이고 가족 내의 가족구성원은 아동이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사회 성원으로서 아동은 가족을 통해서 기본적인 생활양식을 학습하고 부모 및 형제와의 관계를 통해 욕구의 충족과 사회화가 이루어지게 된다(황응연, 이기돈, 1992). 따라서 개인이 가족 외의 사람들에게 취하는 행동 양식은 가족 내의 관계에 의해 형성된 대인관계의 연장이기 때문에(Tomori, 1994) 아동의 또래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고 지지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동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바탕으로 친사회적인 능력을 학습하여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적응적으로 행동한다 (Erwin, 1998). 아동을 대상으로 가족의 건강성과 또래관계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가족건강성이 높은 아동일수록 정서적인 안정감과 공감능력, 즐거움을 갖게 되어 사회성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조아라, 2008; 이장미, 2013; 양영문, 2016). 윤연정(2007)은 가족건강성이 타인의 정서를 타인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공감능력과 상대방을 돕는 이타적 행동의 친사회적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생활적응에 관련해서도 학교수업에 충실하고, 학교규칙을 잘 따르며, 또래 및 교사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등의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진, 양혜원, 2013; 강연진, 이정화, 2014). 김병수(2009)는 타인을 수용하고, 사교적이며, 우호적

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대인관계성향에 가족건강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가족건강성은 아동기의 주요발달 과업 중에 하나인 자아존중감 및 자아정체감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이복희, 2014). 반면 가족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아동은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이혜경, 2009), 우울감을 느끼며(한영민, 2009), 공격성(장경희, 2010), 일탈행동과 비행(권혁순, 2005)등의 문제행동이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족을 정서적으로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아동은 심리적 적응도가 높고,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발달, 정서, 적응능력 및 사회화, 또래관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시기적으로 학령 후기 아동들은 발달특성상 급속한 신체발달과 정신적 성숙을 경험하고,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갈등과 혼란을 겪을 수 있어 각종 스트레스로부터 보다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다(배지아, 2014). 따라서 이 시기 아동들이 적응적으로 청소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중에서 가족의 역할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안지영, 오미경, 김지신, 2011).

아동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요인으로는 자기분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자기분화는 Bowen의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치료의 목표인 동시에 성장의 목표이다. 자기분화란 자아강도에 비유할 수 있는 개념으로 내적 또는 외적인 정서적 압력에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Nichols & Schwartz, 2001). Bowen(1982)은 자기분화란 개인이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성숙과 자기가 태어난 가정으로부터 개별화된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다시 말해 개인이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서 개별성과 연합성의 균형을 이루어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잃지 않고 정서적인 친밀감을 표현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대인관계 측면에서 자기분화가 되지 못한 사람은 자주적, 독립적, 융통성, 일관성 있는 자기로 발달되지 못하여 타인에게 쉽게 동조하고 타인의 인정과 사랑에 급급하게 된다. 반면 자기분화가 잘 된 사람은 타인과 외부세계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정확하게 지각하며, 타인과의 정서적 융합에 의존하지 않고 목표 지향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산다(Bowen, 1982).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자기분화는 개인의 적응이나 대인관계 등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김미진, 2014; 오세나, 2016; 임수진, 2017; Gilbert, 2018). Kerr(1978)는 자기분화란 아동이 어머니와의 융합에서 서서히 벗어나 자기의 정서적 자주성을 형성해 나가는 장기적 과정이라고 하였다. 아동기 후기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가지는 심리적 분리가 시작되는 시기로 지금까지 발달해 온 자기에 대해 정립하고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갖게 되면서 자아정체감이 확립

되는 시기이다(Perosa & Tam, 2002). 따라서 이 시기에 건강한 인격을 형성하고, 나아가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는 데에 있어 개별성과 연합성의 균형을 목표로 한 자기분화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기술인 또래관계기술에 가족건강성과 자기분화가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알아보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아동의 또래관계기술과 가족건강성 및 자기분화의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아동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와 부모역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얻고, 가족 내에서 아동의 또래관계기술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동기 자녀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과 부모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또래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상담과 실질적인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또래관계 향상, 사회성 증진 등의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자기분화가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직무아동이 지각하는 가족 건강성은 또래관계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직무아동의 자기분화는 또래관계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3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생 571명이다. 연구대상을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선정한 이유는 초등학교 5, 6학년 시기에 또래간의 정신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공동의식이 강해지면서 또래동조성이 증가하므로 또래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 시기의 또래관계가 특히 중요하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하였다(이은정, 2015; 이연진, 2019).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은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사용하는 또래관계기술이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 가족건강성, 자기분화를 선정하였다. 이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는 다음과 같다.

가. 또래관계기술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사용하는 또래관계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양윤란과 오경자(2005)가 제작한 또래관계기술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래관계기술 척도는 총 19문항으로 주도성 9문항과 협동/공감 10문항의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는 전체문항이 .91이었다.

나. 가족건강성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해 어은주와 유영주(1995)가 제작한 가족건강성 척도를 한영숙(2006)이 아동에게 맞게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가족건강성 척도는 총 34문항으로 가족원간의 유대,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가족원의 문제해결수행능력 및 가족의 가치체제공유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는 전체문항 .96이었다.

다. 자기분화

아동의 자기분화를 측정하기 위해 Slowron과 Friedlander(1998)가 개발하고 Slowron과 Schumit(2003)가 보완한 자기분화척도(Differentiation of Self Inventory, DSI)를 정경연(2007)이 아동용으로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는 전체문항 .96이었다.

3. 연구 절차

가. 예비 조사

본 조사에 앞서 본 연구에서 실시할 측정도구의 적절성과 문항에 대한 아동의 이해 정도, 소요시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0년 11월 26일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는 경기도에 소재한 초등학교 5학년 한 학급 아동 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 조사를 통해 설문지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문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사이였다.

나. 본 조사

본 조사는 2011년 2월 7일부터 2월 11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경기도에 소재한 초등학교 3곳을 임의 선정한 후 5, 6학년 총 20개 학급의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해당 초등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먼저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실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였다. 담임교사가 직접 교실에 들어가 각 아동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실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후 설문지를 나누어 주고 설문을 작성하도록 한 뒤에 수거하였다. 질문지는 5학년 아동 292명, 6학년 아동 303명으로 총 595부 배포하여 전량 회수되었고 이 중 누락된 항목이 많아서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24부를 제외한 총 571(96.5%)부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의 가족건강성, 자기분화가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측정 변인의 일반적 경향

아동의 가족 건강성, 자기분화, 또래관계기술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측정 변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변인	하위변인	점수 가능한 범위	점수 범위	M (문항M)	SD (문항SD)
가족건강성	가족원간의 유대	10-50	10-50	36.02(3.60)	7.91(.79)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9-45	9-45	30.97(3.44)	6.94(.77)
	가족원의 문제해결수행능력	6-30	6-30	21.41(3.57)	4.73(.78)
	가족의 가치체계공유	9-45	9-45	29.17(3.24)	6.92(.77)
	전체	34-170	41-170	117.56(3.46)	24.83(.73)
자기분화	정서적 반응성	11-66	11-66	41.87(3.81)	11.33(1.03)
	나-위치	10-60	12-60	35.07(3.51)	8.84(.88)
	정서적 단절	12-72	13-72	50.75(4.23)	11.03(.92)
	타인과의 융합	11-66	11-66	41.38(3.76)	10.03(.91)
	전체	44-264	55-248	169.07(3.84)	32.81(.75)
또래관계기술	주도성 기술	9-36	9-36	22.27(2.47)	5.72(.64)
	협동/공감 기술	10-40	11-40	29.31(2.93)	5.61(.56)
	전체	19-76	21-76	51.58(2.71)	10.31(.54)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아동의 또래관계기술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또래관계기술의 차이

(N=575)

사회인구학적 변인	구 분	또래관계기술	
		M(SD)	T값/F값
성별	남학생	50.46(8.90)	-2.603**
	여학생	52.69(11.44)	
학년	5학년	52.24(12.02)	1.510
	6학년	50.93(8.26)	
형제, 자매수	1명	50.30(12.07)	.957
	2명	52.08(10.09)	
	3명	51.26(10.17)	

	4명	48.56(7.41)	
	5명	49.50(11.64)	
경제수준	상	62.08(9.99)d	38.828***
	중상	54.75(9.26)c	
	중	50.82(8.95)bc	
	중하	45.35(9.50)b	
	하	33.57(9.09)a	
학업성적	매우 좋은 편이다	61.76(9.28)d	38.654***
	좋은 편이다	53.84(9.14)c	
	보통이다	50.04(8.48)bc	
	나쁜 편이다	45.82(11.61)b	
	매우 나쁜 편이다	34.86(11.41)a	
아버지 학력	초졸	43.67(4.16)a	9.854***
	중졸	43.88(10.99)a	
	고졸	49.64(9.92)ab	
	전문대졸	48.47(10.17)ab	
	대졸	53.30(9.70)ab	
	대학원 졸	58.10(10.95)b	
아버지 직업	무직	47.73(12.26)ab	7.985***
	단순노동	45.21(8.62)ab	
	반숙련직	40.59(13.89)a	
	숙련직	50.44(8.54)ab	
	판매직	50.42(9.72)ab	
	사무직	52.46(9.97)bc	
	전문직	58.67(10.03)c	
	보안업무	56.31(11.59)bc	
	기타	54.36(9.77)bc	
어머니 학력	초졸	48.50(5.65)ab	11.713***
	중졸	44.88(12.74)b	
	고졸	49.18(9.80)ab	
	전문대졸	54.81(8.70)ab	
	대졸	54.52(9.91)ab	
	대학원 졸	56.94(9.21)a	
어머니 직업	무직	47.33(10.69)	3.089**
	전업주부	51.65(10.65)	
	단순노동	46.76(11.80)	
	반숙련직	48.77(11.65)	
	숙련직	47.27(7.20)	
	판매직	53.14(9.26)	
	사무직	52.09(9.48)	
	전문직	54.77(8.70)	
	보안업무	56.00(.)	
	기타	53.55(12.34)	

** p<0.01 *** p<0.001

a. b 문자가 다를 경우에는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음을 의미함.

3. 아동의 가족 건강성, 자기 분화와 또래관계기술 간의 관계

아동의 가족 건강성과 또래관계기술 간의 관계 아동의 가족 건강성, 자기분화와 또래관계기술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가족 건강성, 자기분화와 또래관계기술 간의 상관관계 (N=575)

	1	2	3	4	5
1. 가족 건강성					
2. 자기분화	.487***				
3. 또래관계기술	.637***	.497***			
4. 주도성 기술	.569***	.455***	.912***		
5. 협동/공감 기술	.590***	.449***	.908***	.655***	

***p<.001

4. 아동의 가족 건강성, 자기 분화가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력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또래관계기술에 대한 각 변인들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의 가족 건강성, 자기 분화가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기 위해 변량증폭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을 산출하였고, 회귀분석에 앞서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기 위해 변량증폭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을 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VIF값이 10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은혜, 이미리, 박소연, 2006). 회귀분석에 투입할 변인들의 VIF를 산출한 결과, 남아의 경우 1.0-2.0 범위, 여아의 경우 1.1-2.3 범위에 속하여 VIF 값이 10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다중공선성 진단의 기본 가정을 충족시켰으므로 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4>과 같다.

<표 4> 아동의 가족 건강성, 자기 분화의 또래관계기술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N=575)

독립변인	또래관계기술					
	주도성 기술		협동/공감 기술		전체	
	B	β	B	β	B	β
가족 건강성	.105***	.455***	.110***	.487***	.215***	.518***
자기 분화	.041***	.233***	.036***	.212***	.077***	.245***
상수	3.045**		10.246***		13.291***	
R2	.365		.383		.452	
F	164.668***		177.474***		235.764***	

p<.01 *p<.001

먼저 또래관계기술 전체에 대한 각 변인의 설명변량은 45%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37.764, p<.001). 가족 건강성은 또래관계기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215, p<.001). 자기 분화는 또래관계기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77, p<.001). 아동의 또래관계기술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가족 건강성($\beta =.518$, p<.001), 자기 분화($\beta =.245$, p<.01)순으로 높았다. 즉 가족 건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기 분화가 높을수록 아동의 또래관계기술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주도성 기술에 대한 각 변인의 설명변량은 47%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64.668, p<.001). 가족 건강성은 주도성 기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105, p<.001). 자기 분화는 주도성 기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41, p<.001). 아동의 주도성 기술에 대해서는 가족 건강성($\beta =.455$, p<.001), 자기 분화($\beta =.233$, p<.01)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즉 가족 건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기 분화가 높을수록 주도성 기술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협동/공감 기술에 대한 각 변인의 설명변량은 38%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77.474, p<.001). 가족 건강성은 협동/공감 기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110, p<.001). 자기 분화는 협동/공감 기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36, p<.001). 아동의 협동/공감 기술에 대해서는 가족 건강성($\beta =.487$, p<.001), 자기 분화($\beta =.212$, p<.01)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즉 가족 건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기 분화가 높을수록 협동/공감 기술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3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571명을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과 아동의 자기분화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아동의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이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은 또래관계기술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주위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일생 동안 성장해 나간다. 그 최초의 환경이 부모 자녀관계이며 부모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사회에서 수용되는 방식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배우게 된다(박은엽, 2018). 박미지(2017)는 가족 건강성이 가족원 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가족 문제에 대해 잘 대처하며 가치체계를 공유함과 동시에 개인의 개별성과 자율성을 인정하여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이루며 서로 성장을 돕는 가족의 특성이라고 설명하였다. 가족이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것은 가족구성원들 사이에 서로의 생각과 애정 및 사상 등을 전달해주는 의사소통유형이 존재하고, 가족전체 및 개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면서 문제해결수행능력을 가지게 되며, 가족고유의 특성인 가치체계를 공유하고, 가정에서 위로와 안정감 및 지지 등의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아동을 스스로 안정감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도록 하여 사회에서 자신감 있는 태도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가족 내에서 혼숙된 생활양식 패턴은 일상생활에서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표출됨으로써 건강한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이 또래와 그 외의 다양한 관계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맺고,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취하게 하여 타인에게 긍정적 피드백을 받아 긍정적 자아상을 갖게 되어 또래관계기술을 잘 맺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은 또래관계에서 서툴고 부자연스러운 관계를 형성하여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가정은 아동이 모든 것을 배워나가는 인생의 초석이 되는 공간이므로 건강한 가정을 이뤄내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또래관계기술의 하위변인인 주도성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아동이 가족을 건강하다고 지각하면 또래관계기술의 하위변인인 주

도성 기술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심하고 주눅이 든 아동보다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아동이 또래에게 인기가 많다고 보고한 김현욱(2008)의 연구결과를 비추어 볼 때 아동이 주도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또래관계를 맺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가정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지원과 공유가 없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또래에서도 위축되고 배척당하여 왕따 대상이 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도성은 또래관계 뿐만 아니라 학습에도 크게 관련이 있어 학업능력이 중요한 학령기 아동에게는 더욱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학업을 기능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학습을 주도하는 자기주도 학습이 바람직한데 자기주도 학습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책임을 져야 하므로 이는 아동의 주도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박형근, 2009). 특히 학업성적에 민감한 학령기 아동이 또래관계와 더불어 학습에도 주도성을 갖는다면 학교적응 및 자존감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또래관계기술의 하위변인인 협동/공감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협동/공감기술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족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은 부모를 중심으로 가족구성원이 서로의 대화에 귀 기울이고, 서로 이해하는 능력이 있으며, 공감적으로 대하고, 협조적으로 행동하여 가족전체가 건강하게 기능한다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은 자신이 가족들과 관계했던 행동양식을 그대로 사회에서 재현시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그로 인해 아동은 또래관계에서 협동적이고 공감적인 태도를 취하여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타인에게 협동하고 공감적 태도를 보이는 행동은 친사회적행동에 포함되는데 Findlay, Girardi와 Coplan(2006)는 공감, 협동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아동들은 다른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 및 사회적 행동을 잘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위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양혜영(2006)의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성향을 가진 아동은 남을 배려하고 상처 입은 친구를 돕는 것 같이 사회적으로 유능한 행동을 많이 한다고 보고 하였으며, 다른 사람을 놀리거나 화가 나면 때리는 것과 같은 사회적으로 부적합한 행동을 적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타인의 마음상태를 잘 추론하고 타인의 얼굴에서 정서를 잘 인식하며 사회적으로 유능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은 아동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유능감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협동능력과 공감능력은 사회전체에도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왕따, 학교 폭력, 학교 부적응 등의 사회문제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무시된 채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무시하거나 짓밟는 등의 문제가 확대되어 나타나

는 현상이기 때문에 규칙을 따르고 상황에 협조하며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할 줄 아는 인간으로 성장한다면 아동 본인에게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에 좋은 영향들이 순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협동, 공감능력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양육과 모델링을 통해 인격형성과 더불어 천천히 형성되므로 건강한 가족을 토대로 구성원들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건강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시행하거나 가정 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원만한 상호작용을 하도록 상담이나 여러 사회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아동의 자기분화가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자기분화 수준이 높으면 아동은 또래관계에서 또래관계기술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rickson은 12세에서 18세를 ‘정체감 대 정체감 혼미’의 시기로 분류하여 정체감 형성을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이라고 하였다. Blos는 12세, 13세에 해당하는 아동후기 및 청소년전기에 자신의 원가족으로부터 개별화하는 과정이 성숙한 정체감 형성의 핵심이라고 하였다(Perosa & Tam, 2002). 따라서 학령후기의 아동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을 시작하는 시기로 충동적이고 극단의 정서적 사고와 행동에서 자유를 획득하며 나아가 성장기 이후에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해 자기 자신과 타인, 환경을 올바르게 지각하고 그에 대한 통제력을 갖추어야 하며, 주체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문화적인 측면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강조하는 서구와는 다르게 상호의존적이고 밀착된 유대관계가 자리 잡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독립성과 자율성 훈련은 부족한 상황이다(남연희, 2008). 그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 삶의 변화에 대처할 능력이 미비하거나 부적응을 경험하게 되고, 대인관계에서 미분화된 사람의 특성을 보이는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전춘애, 1993). 따라서 자기분화는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고 성숙한 발달을 위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Skowron & Fridlander, 1998) 또래관계 및 주변 환경에서 건강하게 기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발달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족건강성과 마찬가지로 자기분화도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서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윤연정, 2007) 자신에 대한 지각과 자율성을 갖추고 부모로부터 분리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에게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기분화수준이 높을 때 정서지능이 높고(임수진, 2017), 자기 주도 학습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으며(성금례, 2017), 자기효능감과도 관련이 있어 이후 진로자기결정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방미화, 2018).

아동의 자기분화가 또래관계기술의 하위변인인 주도성 기술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아동의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 때 또래관계기술의 하위변인인 주도성기술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분화에서 나-정체성의 분화수준이 낮고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지나치게 반응할 경우 타인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데 급급하여(남상철, 유영달, 2007)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타인에게 과도하게 끌려가 정체성의 혼란이 오게 된다(김유숙, 2007). 특히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은 가족이나 선생님보다 또래집단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공감대를 형성하여(조성남, 박선웅, 2001) 또래에 대한 관심과 동조성이 증가하는 시기로 이 시기의 또래들과 지나치게 융합이 되면 낮은 자기분화로 인해 미성숙한 아동끼리 서로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고 그릇된 행동이나 비행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타인의 눈치를 보는 데 지나치게 열중하여 자신의 감정보다는 타인의 감정에 휩싸여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반대로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아동은 잘못되고 그릇된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러한 상황에 휘말리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그러한 상황에 휘말리더라도 자주성을 잃지 않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본인의 삶을 살아갈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아동의 자기분화가 또래관계기술의 하위변인인 협동/공감 기술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아동의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 때 또래관계기술의 하위변인인 협동/공감 기술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분화는 감정체계를 포함하는 구조로(정경연, 2007) 정서적 반응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역기능적으로 정서가 단절되면 정서적 친밀감을 느끼지 못해 또래관계에서 우정, 신뢰와 같은 감정을 소유하기 힘들고 타인의 감정에도 무감각하여 공감하기가 어렵다. 그로 인해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아동은 소외감, 왕따에 노출 될 수 있고 성인이 되어서까지 대인관계에 문제를 갖게 된다(송화숙, 1996). 따라서 아동이 자기분화 수준을 높여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역기능적으로 융합하거나 정서가 단절되지 않은 상태로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갖지 않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3개 초등학교를 임의표집 하였고 연구대상을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전국에 있는 모든 아동으로 일반

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 지역의 분포를 넓혀 일반화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인의 측정을 자기보고에만 의존하였기 때문에 자기보고식 측정이 갖는 문제점과 오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나 교사, 또래 등의 평가를 포함시켜 다면적으로 살펴본다면 아동발달과 가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동이 지각하는 아동의 가족건강성, 자기분화만을 또래관계기술의 예측변인으로 선정하여 연구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아동의 또래관계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그동안 함께 고려되지 않았던 가족건강성과 자기분화를 살펴봄으로써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사회적 기술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즉, 또래관계기술을 잘 형성하기 위해서 가족 내에서의 역할의 중요성과 내적인 성숙인 자기분화의 수준을 증가시키는 접근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셋째, 또래관계기술이 미숙하여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집단부적응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 및 상담 자료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참고문헌

- 강연진, 이정화(2014). 아동의 자아탄력성,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수산해양교육연구*, 26(1), 59-71.
- 고선영(2018). 초등학생의 친구관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혁순(2005).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건강도와 일탈행동과의 관계.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미진(2014). 원가족의 가족체계가 부모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수(2009).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가족건강성 및 문화성향과 대인관계 성향간의 관계 분석. *한국가정과 교육학회지*, 21(4), 91-103.
- 김순자, 조용태(1998). 초등학교 아동의 사회적 기술 발달 경향. *대진논총*, 7, 63-88.
- 김유숙(2007). 가족상담. 서울: 학지사.
- 김현욱(2008). 초등학생 별명문화와 또래관계 유형 및 또래지위와의 관계 분석. *한국 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상철(2004). 양육태도와 자아분화 수준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상철, 유영달(2007). 부모와 자녀의 양육태도 지각 및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51-75.
- 남연희(2008).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청소년 대인관계 성향 간의 관계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기범(2016). 초등학생의 또래관계, 자아존중감과 외로움 간의 관계.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무경(2005). 학습과 발달에 대한 이해: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서울: 창지사.
- 방미화(2018). 기독교소년의 자아분화 및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승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희(2013). 부모-자녀관계와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및 창의적 성격의 관계.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지(2017). 일반계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가 내·외재 동기를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엽(2018).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과보호와 대인관계능력간의 관계에서 부자유친

- 성정의 조절효과.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재(2001). 아동의 또래관계 증진을 위한 사회적 기술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현진, 양혜원(2013). 아동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5(1), 257-278.
- 박형근(2009). 동기요인과 자기주도학습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분석.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지아(2014). 모-자녀 애착 및 공유시간과 자아존중감이 학령 후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금례(2017). 고등학생의 자기결정성과 자아분화가 자기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화숙(1996). 상호의존과 자아분화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지영, 오미경, 김지신(2011). 애착이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친구지지의 매개 역할. 아동학회지, 32(6), 63-79.
- 양영문(2016). 교육학과 가정교육전공 청소년이 인식하는 가족건강성, 공감능력 및 행복감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윤란, 오경자(2005). 또래관계기술 척도의 개발: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4), 961-971.
- 양혜영(2006). 자기표현훈련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어은주, 유영주(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45-155.
- 오세나(2016). 부의 과보호와 남녀청소년의 자아분화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연정(2007). 가족건강성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복희(2014).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이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4), 57-74.
- 이연진(2019). 청소년 인성캠프 ‘마음빼기 명상’이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아존중감, 자기조절, 또래관계의 질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정(2015). 부모애착이 학령 후기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공감과 도덕추론의 매개적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혜(1999). 아동의 친구관계에 관한연구. 아동학회지. 20(3), 77-95.
- 이은혜·고윤주(1999). 학령기 아동을 위한 친구관계의 질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2), 225-242.
- 이은혜, 이미리, 박소연(2006). 아동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이상미(2013). 초등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 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 (2014). 또래 괴롭힘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적대적 귀인, 공격행동에 대한 규범적 신념의 매개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경(2009).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부적응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수진(2017).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중등교육연구, 65(1), 173-194.
- 장경희(2010). 가족건강성과 공격성간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와 또래관계기술의 조절효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춘애(1993).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혜진(2014). 학령이 아동의 정서인식·표현능력과 학교적응유연성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경연(2007). 부모 및 자녀의 자아분화수준과 아동이 지각한 세대간 가족 관계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성남, 박선웅(2001). 청소년 하위문화와 정체성 정치: 또래집단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7, 117-162.
- 조아라(2008).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이 친구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원(2010). 아동이 지각한 가족 건강성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혜(2006). 고등학생들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과 가족건강성과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17, 251-272.
- 한영민(2009). 대학생의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영숙(2006). 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 및 부모의 양육태도와 행동문제간의 관계 연구: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응연, 이기돈(1992). 신경발달심리학. 서울: 배영사.
- Belsky, J.(1981). Early human experience: A family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7, 2-23.
- Bowen, M.(1982).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Aronson.
- Erwin, P.(2001). *Friendship and peer relations in children*. New York: Wiley.
- Findlay, L. C., Girardi, A., & Coplan, R. J.(2006). Links between empathy, social behavior, and social understanding in early childhood.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1, 347-359.
- Kerr, J.(1978). Marital satisfaction and attraction as a function of differentiation of self.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ansas State University.
- Kerr, M. E.(1981). Family systems theory and therapy. In A.S. Gurman & D. P. Kniskern(Eds.), *Handbook of family of family therapy*. New York: Bruner/Mazel.
- Medinnus, G. R.(1970). Adolescents self-Acceptance and Perceptions of Their Disturbed Adolescent Child.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5, 98-105.
- Nichols, M. P., & Schwatz, R. C.(2001). *Family Therapy: Concepts and methods*(5th ed.). Boston: Allyn & Bacon.
- Parker, J. G., & Asher, S. R.(1987). Peer relations and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erosa, L. M., & Ham, H. P.(2002). Intergenerational system theory and identity development in young adult women. *Jornal of Adolescent Research*, 17, 235-259.
- Skowron, E. A., & Fridlander, M. I.(1998). The differentiation of self Inventory: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235-246.
- Skowron, E, A., & Schmitt, T. A.(2003). Assessing interpersonal fusion: Reliability ans validity of a new DSI fusion with others sub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9(2), 209-222.
- Tomori, M.(1994).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with alcoholic parents. *Journal of Adolescence*. 29, 949-959.

〈Abstract〉

Family Strengths, Self-Differentiation and Peer Relational Skills Perceived by Children

An, ji-sun-Kim, jiny

Hugmomhugin counseling center-Yonsei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family strengths, self-differentiation and peer relational skills. The subjects were 571 students(5th, 6th graders) from three different elementary schools.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from Feb 7th, 2011 to Feb 11th,2011.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identifying influence of family strengths and self-differentiation perceived by children on children's peer relational skills. The result is summarized as follows. The higher level of self-differentiation children had and the higher they perceived family strength, the more they used initiative, empathy and cooperation skills in peer relationship.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not only provide data on parenting children with understanding characteristics of 5th ,6th graders of elementary school but also to inform importance of roles within family and the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on peer relationship improvement.

Key words : Peer Relational Skills, Peer Relational, children, Family Strengths, Self-Differentiation

보육교사를 위한 인형치료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염창현*·선우현**

선우가족놀이치료센터 광고점 · 명지대학교

본 연구는 인형치료 집단프로그램이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과 회복탄력성의 효과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대상은 보육교사 16명을 대상으로 '2016년 한국인형치료 학회춘계학술워크숍'을 통해 소개된 15회기 집단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양적분석 방법은 자아탄력성 척도와 회복탄력성 척도를 사전-사후 측정하여 비교하였고, 사례분석 방법은 단계별로 나타난 자아탄력성과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신감, 자기조절, 대인관계, 낙관적 태도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인형치료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형치료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인형치료 집단프로그램 실시 후 보육교사의 자신감, 자기조절, 대인관계, 낙관적 태도와 같은 하위요인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인형치료 집단프로그램은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과 회복탄력성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집단프로그램으로서도 유용한 가치를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핵심어 :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형치료, 인형치료 집단프로그램, 자아탄력성, 회복탄력성

* 본 연구는 염창현(2020)의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요약한 논문임.

** 교신저자: 선우현(johann02@naver.com)

■ 게재 신청일 : 2020년 1월 17일 ■ 최종 수정일 : 2020년 2월 18일 ■ 게재 확정일 : 2020년 2월 19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모든 직업에는 나름의 스트레스가 존재한다. 똑같은 행위가 일과 취미로 다르게 취급될 수 있는 것은 그 행위를 함에 있어 스트레스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요 기준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자신을 소진하기도 한다. 이번 연구의 논의 대상인 보육교사 또한 그런 의미에서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대표적인 직업군이며, 그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영유아의 초기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가족 형태의 변화와 같은 시대적 필요성에 의해 보육기능에 대한 사회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박인숙, 2018). 통계를 통해 살펴볼 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연령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수는 증가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수를 살펴보면 2005년 989,390명에서 2015년 1,450,243명으로 늘어났다. 이용률의 증가는 전체 0~2세 영유아의 경우를 살펴보다라도 알 수 있는데, 2005년 22%가 어린이집을 이용했다면 2017년에는 71.9%로 늘어났다(보건복지부, 2018). 이와 같이 영유아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부모역할을 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황민희, 유경훈, 2017).

보육교사란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4001호), 특히 영유아 시기에 형성되는 신뢰감과 애착은 이후 발달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보육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권경아, 2015). 이 시기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부모와의 분리를 경험하게 되고, 목표수정 단계를 통해 부모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식해 간다(이원경, 2005). 이때 아동은 신뢰로운 관계를 맺는 대상과는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상과는 불안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정서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된다(김영미, 2016).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이론에서 볼 때 영유아에게 영향을 주는 다양한 환경체계에서 보육기관과 교사는 가정, 학교, 이웃과 더불어 중간체계로 아동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이다(최경숙, 송하나, 2015 재인용).

그렇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스

트레스를 겪고 있음을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양혜진, 2019),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김옥주, 2019), 보육교사의 자존감과 직무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한희선, 이보영, 2019) 등 최근의 연구된 자료들을 찾아봐도 보육교사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보육교사의 스트레스로는 대표적으로 영유아의 다양한 특성, 과중한 업무량, 시간의 유용성 부족, 보수나 처우 미흡, 행정적 지원의 부족, 학부모와의 갈등, 원장 및 동료와의 관계의 어려움, 낮은 사회적 인식 등도 있다(박은주, 문태형, 2011 재인용). 특히 문제는 이러한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직무소진과 이직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박수경, 하승민, 2017). 이러한 사실은 기존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무스트레스의 주효과 요인(홍석영, 2012; 박진희, 2013),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경로(유현숙, 2013) 등의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2018년 발표된 통계수치만 보더라도 보육교사들의 이직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017년 사직한 보육교사 비율은 전체 교사의 25.7%에 달하고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의 평균 근무 연수는 4년 2개월, 근무만족도는 4점을 매우 만족으로 했을 경우 평균 3.2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18).

이러한 보육교사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에 여러 심리치료나 자기 개발 프로그램이 시도되었는데, 지금까지 연구된 것들을 정리하면 현실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권은주, 조진희, 2010),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미치는 효과(안선희, 2011), 한국화 매체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김옥진, 2015),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상담 프로그램인 샤이닝 티처 프로그램(Shining Teacher Program)의 효과(이경숙, 박진아, 김명식, 2017) 등이 있으며, 지금까지 연구된 자료의 수를 봤을 때 그 수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상기의 연구들이 방법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찾고자 했던 궁극적 목표는 스트레스로 인해 소진된 상태를 원상태로 되돌리고자 하는 과정의 탐색이며, 이러한 노력은 자아탄력성과 회복탄력성으로 지칭하는 용어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영어로 탄력성을 의미하는 resilience에 ego를 붙인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은 변화하는 환경과 새로운 환경에 처했을 때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균형을 이루며, 내적·

외적 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다(Rutter, 1987 재인용). 만약 이러한 자아탄력성이 잘 작용한다면, 인간은 안정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이인호, 2017).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과의 변별력을 위해 ‘성격’이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자아탄력성을 살펴볼 것이다. 물론 자아탄력성은 한 번 갖고 태어나면 바뀌기 어려운 개념이라기보다 훈련과 치료를 통해 그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이지은, 2017). 보육현장에서도 자아탄력성은 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적응기제이다(최윤희, 2015). 기존 연구들에서도 자아탄력성이 높을 때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김인숙, 2009), 또한 직업 소진이 덜 된다고 알려져 있다(이수련, 이정화, 2010).

또 다른 탄력성의 개념인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고난이나 역경,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건강하게 적응하는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한 심리적 개념으로(Block & Kremen, 1996 재인용) 현재 정신의학, 간호학, 교육학, 사회학, 커뮤니케이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주제이다. 기존 심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위기와 역경에 맞닥뜨렸을 때 다시 일어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욱 풍부해질 수 있는 인간의 능력으로까지 보고 있다(심리학용어사전, 2017). 이런 점에서 현장에 적응해야만 하는 교사들에게 회복탄력성은 필요한 요소이며(Gu & Day, 2007 재인용),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호요인으로 간주된다(Lin Rong & Lee, 2013 재인용). 이와 더불어 회복탄력성이 높은 보육교사는 긍정적 모델링을 영유아에게 부여할 수 있다고 보고되기도 했다(안채영, 2016). 보육교사들이 이처럼 스트레스라는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빨리 벗어나 정상적인 업무를 이어가기 위해 자아탄력성(김영미, 2016)과 회복탄력성(좌승화, 오정희, 2019)과 같은 개념은 반드시 고려할 사항이다.

하지만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과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는 집단미술치료를 통한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연구(김영미, 2016) 이외에 활발히 연구되고 있지 않다. 교사의 범위를 넓혀 유치원교사, 특수교사, 예비교사로까지 그 범위를 넓혀 살펴보면 인지·정서·행동 치료(REBT)를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장애유아 통합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배성현, 박주연, 이병인, 2014)를 알아본 연구 이외에 그 동안 연구된 자료가 부족하다.

그런 관점에서 기존 연구를 통해 자아탄력성과 회복탄력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인형치료 집단프로그램이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과 회복탄력성 증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인형치료 집단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인형치료(Figure therapy)는 동물과 가족인형

이라는 매체를 통해 언어로 나타내기 힘든 자기의 긍·부정적 감정을 표현 가능하도록 돕는 심리치료법의 하나다. 여기서 사용되는 이중 동물인형은 무의식을 표현해 줄 수 있으며, 함께 사용되는 가족인형은 치료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해준다(최광현, 선우현, 2016). 인형상징체계는 심리적으로 안전하게 무의식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내담자에게도 상담의 동기를 갖게 해준다. 그런 이유로 인형치료는 개인의 문제 뿐 아니라 가족의 문제까지 사정하고 진단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이며 내담자 스스로 통찰에 이르게 해주는 효과적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이금순, 최광현, 2018).

인형치료 집단프로그램은 인형치료를 집단프로그램의 형태로 구성한 것으로 집단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나와 타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집단 내에서 경험된 공감을 바탕으로 긍정적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개인으로 봤을 때 긍정적 자기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대상은 안전한 대인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매개로 무의식을 탐색하고 가족을 표현하기 때문에 학령기부터 성인기의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가능하다(인형치료연구회, 2016).

인형치료 집단프로그램은 그 동안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관계기술과 자아존중감(최광현, 선우현, 2017), 지역아동센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성과 자기상(이수민, 노남숙, 2017), 지역아동센터아동을 대상으로 적응유용성, 낙관성, 학교행복감(김종운, 하미경, 2018), 청소년 자녀와 모를 대상으로 자아정체감(이금순, 최광현, 2018)에 대한 연구들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그 대상을 넓혀 연구되어 왔다. 대상은 조금 다르지만 여성 상담자들의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인형을 이용한 집단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가 있었다(최정임,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인형치료 집단프로그램이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과 회복탄력성에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인형치료 집단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나타난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에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인형치료 집단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나타난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에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3. 인형치료 집단프로그램 실시 후 보육교사에게 나타난 변화는 어떠한가?

- 3-1. 자신감에 나타난 변화
- 3-2. 자기조절에 나타난 변화
- 3-3. 대인관계에 나타난 변화

3-4. 낙관적 태도에 나타난 변화

II. 인형치료 집단프로그램의 구성

본 연구의 집단프로그램은 ‘2016년 한국인형치료학회춘계학술워크샵’에서 발표된 자료를 기초로 사용하였다.

초기단계는 1~3회기로 개인별로 자기탐색 및 집단탐색의 단계로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탐색하고 그것을 참가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이 초기 단계를 통해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 앞에서 개방해 보는 경험을 하게 되며,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이것을 통해 참가자들은 서로를 알아가며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을 개방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앞으로의 치료과정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친밀감은 참가자들 사이에, 또는 참가자와 치료자 사이에 형성되는 라포의 개념으로 이후 치료회기를 끌고 가는 원동력이 된다. 또한 참가자들은 집단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상호작용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Yalom & Leszcz, 2005 재인용).

〈표 1〉 인형치료 집단프로그램

단계	단계	제목	회기	활동내용
초기 단계	자기 탐색 및 집단 탐색	나, 이런 사람이야	1	참가자들이 모두 자기이름을 소개하기 참가자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 명함 만들고 서로 나누기
		나를 맞춰봐	2	동물인형 중 현재 자신을 상징하는 동물인형 찾아오기 자기소개서 작성하고 자기소개하기 탐정놀이
		우리끼리 모여요	3	동물인형 중 소망하는 자신의 동물인형 찾아 이유 설명하기 동물 사파리 마을 이름 정하기 동물 사파리 마을 광고하기
중기 1단	집단 관계 형성	따로 또 함께	4	나만의 동물 사파리 만들기 집단 동물 사파리 마을 만들기 집단 동물 사파리 마을의 스토리텔링

계	우리 함께해요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꿇속말 전달하기 얼굴표정 맞추고 표정 전달하기 손바닥 장점쓰기 색종이 모으기
	우리는 한 팀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색종이 놀이 꿈꾸는 마리오네트 놀이 난장이 거인놀이 색종이 인형 만들고 팀별 경연대회
중기 2단계	네버엔딩 스토리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인형을 선택하고 누구인지 설명하기 가족인형극 놀이 집단 별로 가족인형극 공연하기 소감을 나누는 시간 갖기
	나의 가족을 소개해요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인형으로 현재의 가족을 세우고 이유를 설명하기 동물인형 중에서 가족이 보는 나를 다시 찾아오고 설명 덧붙이기
말기 단계	행복한 순간 포착하기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인형 세우기 가족인형이 되어 가족조각 만들기 행복한 순간에 대한 소감나누기
	타인이 보는 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인형 중에서 타인이 보는 나를 찾아 이유를 설명하기 긍정적 모습을 상징하는 동물을 서로 찾아주기 타인이 찾아준 나에게 대한 피드백 나누기
	나에게 필요한 사람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가 좋아했던 사람을 동물인형으로 찾아 그 이유를 설명하기 나와 그 사람 사이의 대극 찾기 대극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찾아보기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찾기
	내편이 되어 주는 사람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인형 중에서 내 편이 될 만한 사람을 상징하는 동물인형을 선택하여 이유 설명하기 그동안 활동 중 선택된 나의 이미지로 개인 사파리 만들기
	기분 좋은 소리가 들려요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주 들었던 긍정·부정의 소리들을 포스트잇에 쓰고 발표하기 다함께 긍정적 내면의 소리내기
	행복한 나만의 인형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가 찾은 긍정적 자기상 긍정적 메시지 전달하기 나만의 인형 만들기 긍정적 자기상이 놓여진 나만의 인형 간직하기
	내가 받은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금까지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 갖기

선물

자기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수료증에 적어보기

중기 1단계는 4~6회기로 이 단계의 목표는 초기단계에서 형성된 집단의 응집력을 바탕으로 공감적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지지적인 집단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시간이었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관계는 중기 2단계에서 진행될 개인적 가족탐색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저항 및 방어적 태도를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참가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만들어 서로에 대한 신뢰감과 자기개방을 늘어나게 한다(Yalom & Leszcz, 2005 재인용).

중기 2단계는 7~9회기로 이 단계에서 참가자들은 다소 개인적일 수 있는 각자의 가족관계를 탐색해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에게서 저항과 방어적 태도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동안 경험해 온 집단의 공감대와 지지, 수용을 바탕으로 안전한 환경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 보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이 과정은 미성숙하고 불안정한 개개인이 집단이 생기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러 사람 앞에서 할 수 있게 도우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 문제 해결력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말기단계는 10~15회기로 이 과정에서는 참가자들이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보다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Yalom & Leszcz, 2005 재인용). 이전 단계까지를 통해 현재 가족 안에서 긍정적 자기상을 찾았다면 말기 단계에서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집단 안에서 긍정적 자기상을 찾고 그것을 긍정적 내면의 소리로 구축하며 본 집단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게 된다. 스스로 집단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장점과 변화를 찾고 이를 집단 안에서 공감적 반응을 통해 안전하게 경험하면서 자아탄력성과 회복탄력성을 형성하게 된다. 집단에 참여하며, 그 속에서 느낀 공감적 경험은 자아탄력성을 높여 주며, 그 안에서 지지와 피드백을 통해 해결력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회복탄력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3개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 중 인형치료 집단프로그램에 참여 의사를 밝힌 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무선 배치

원칙에 의거해 실험집단 8명, 통제집단 8명으로 나누어 각각 실험하였다.

〈표 2〉 연구대상의 특성

	경력	나이	학력	교사 자격증	참여 의뢰사유
A	2년	26	전문대 아동학	2급	동료들과 트러블이 생길 때가 있다. 낮은 업무 평가로 지적을 자주 받고, 지금까지 이직이 짓았다.
B	4년	27	전문대 아동 미술	1급	감정의 기복이 심하며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누워 있고 싶다.
C	7년	30	전문대 사회 복지	1급	사람들로부터 인정 받고 싶지만 그럴수록 내가 없어 지는 기분이 든다. 자주 아프고 지치고 피곤하다.
D	5년	27	전문대 사회 복지	1급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다. 전체적으로 자신 감이 부족하고, 그 중에서도 외모에 자신이 없다. 감정기복이 심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에 자신이 없다.
E	7년	36	전문대 사회 복지	1급	통제되지 않는 둘째 아들로 인해 걱정이 많다. 주말 부부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이 크다. 대학 때 심리프로그램을 들어봐서 호기심으로 참가를 결정했 다.
F	3년	24	보육 교육원	2급	집을 자주 가출하는 동생과 밖으로만 활동하는 부모 님 때문에 걱정이 된다. 연예를 시작하면 상대에게 너무 집착하게 된다.
G	5년	47	보육 교육원	2급	동료들과 교류를 전혀 하지 않는다. 4년 넘게 한 곳에 서 근무했지만 친한 사람이 없다. 인상 때문인지 오해 를 받고, 그로 인한 컴플레인 때문에 힘들어지기도 했 다.
H	10년	45	대학 아동 복지	1급	전 남편과 현재 이혼 소송 중으로 혼자 3명의 아이들 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이 크다. 매일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지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인형치료 집단프로그램이 보육교사들의 자아탄력성과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 방법으로 실험 처치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인형치료 집단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육교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모이는 월례회의에서 피력하였고, 이에 동의를 해주신 5곳의 어린이집 중 현실적으로 15회라는 집단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3곳의 어린이집을 선별해 본 집단프로그램의 취지와 내용을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에게 설명하였다. 어린이집의 특성 상 모든 교사가 한꺼번에 자리를 비우고 집단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에서도 실제 참여 가능한 보육교사들을 별도로 선별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참여 어린이집의 요청에 따라 원 별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실험집단은 민간어린이집 1개 원에서 전체 10명의 교사 중 참여를 희망한 8명이 참여하였고, 통제집단은 민간어린이집 1개 원과 가정어린이집 1개 원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8명이 각각 배정되었다. 이후 참여자 모두에게는 연구의 취지를 자세히 안내해 드린 후 안내문과 동의서에 승인을 받았으며, 본 집단프로그램의 연구자의 자격사항과 간단한 약력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본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들과 관련된 비밀유지를 지킬 것과 본 연구 이외의 기타 목적으로 해당 내용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안내해 드렸다.

연구기간은 2019년 8월 12일부터 2019년 9월 16일까지, 주 3회로 1회기에 40분씩 총 15회기로 진행하였다. 각 어린이집 별로 가을에 행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집단프로그램 기간이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참가자들의 의견과 원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 3회씩 집중적으로 회기가 진행 되었다. 집단프로그램 실시 장소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어린이집 교실 내에 진행되었고, 집단프로그램은 본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다. 실험이 끝난 후 통제집단 보육교사들에게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형치료 집단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적용해 본 연구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3. 측정도구

가. 자아탄력성 척도

이번 연구에 사용한 자아탄력성 척도는 박현진(1996)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했는데, Klohn(1996)이 CPI(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로부터 CAQ(California Adult Q-Set) 자아탄력성 문항들과 .20이상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48개 문항들을 뽑아 CPI의 다른 하위 척도와 관련이 있는 문항을 빼고 최종 29개의 항목을 자기보고식 형태로 개발한 것이다.

자아탄력성 척도의 요인별 신뢰 검증 결과는 전체 Cronbach's $\alpha = .933$ 으로 매우 신뢰로운 수준을 나타내며, 하위요인별로는 자신감 Cronbach's $\alpha = .819$, 대인관계 효율성 Cronbach's $\alpha = .885$, 낙관적 태도 Cronbach's $\alpha = .790$, 분노 조절 Cronbach's $\alpha = .600$ 으로 모두 .60 이상으로 신뢰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회복탄력성 척도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회복탄력성 척도 KRQ-53(Korean Resilience Questionnaire ; KRQ)는 Reivich와 Shatte(2002)의 회복탄력성지수검사(Resilience Quotient Test; RQT)를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전체문항 수는 총 53개의 문항이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일 때 5점, '전혀 그렇지 않다'일 때 1점으로 체크하는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으면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회복탄력성 척도의 요인별 신뢰 검증 결과는 회복탄력성 전체는 Cronbach's $\alpha = .82$ 로 신뢰로운 수준을 나타내며, 하위요인별로는 대인관계능력 Cronbach's $\alpha = .79$, 자기 조절능력 Cronbach's $\alpha = .80$, 긍정성 Cronbach's $\alpha = .81$ 로 모두 .60 이상으로 신뢰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이번 연구에서는 양적 분석과 사례 분석을 함께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비모수 통계방법인 Wilcoxon 부호 순위검증(Wilcoxon Signed-Rank Test)을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아탄력성과 회복탄력성의 사전-사후 검사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의 방법은 인형진단평가 매뉴얼(최광현, 선우현, 2017)을 기초로 분석되었다. 인형진단 평가 과정은 녹음과 사진촬영이 이루어졌으며, 아동심리치료 교수와 인형진단평가 전문가 1인에게 Supervision을 받았다. 또한 전체 인형치료 집단프로그램 과정이 끝난 후 아동심리치료 1인에게 Supervision을 받고, 그것을 기초로 참가자들의 자아탄력성과 회복탄력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인형치료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과 회복탄력성 척도는 1회기 시작 전, 15회기 종료 후 각각 별도로 자가 체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Wilcoxon 부호 순위 검증 방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산출된 결과가 음의 순위는 각 항목의 사후검사 < 사전검사를 의미하며, 양의 순위는 각 항목의 사후검사 > 사전검사를 의미한다.

Wilcoxon 부호 순위 검증을 통해 살펴 본 실험집단의 전체 자아탄력성은 유의미하게 증가($Z=-2.524, p<.05$)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형치료 집단프로그램이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전체 값 뿐이 아니라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을 개별적으로 각각 살펴보면 자신감($Z=-2.371, p<.05$), 낙관적 태도($Z=-2.316, p<.05$), 분노조절($Z=-2.060, p<.05$)에서는 유의미한 증가를 나타냈지만, 대인관계효율성($Z=-.682, p>.05$)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아탄력성 차이

항목	집단	N	평균순위		순위합		Z
			음의순위	양의순위	음의순위	양의순위	
자신감	실험집단	8	.00	4.00	.00	28.00	-2.371*
	통제집단	8	1.50	3.38	1.50	13.50	-1.625
대인관계 효율성	실험집단	8	5.00	3.60	10.00	18.00	-.682
	통제집단	8	4.40	3.00	22.00	6.00	-1.364
낙관적 태 도	실험집단	8	1.50	4.93	1.50	34.50	-2.316*
	통제집단	8	3.25	5.75	13.00	23.00	-.710
분노조절	실험집단	8	.00	3.00	.00	15.00	-2.060*
	통제집단	8	3.25	4.00	13.00	8.00	-.531
전체	실험집단	8	.00	4.50	.00	36.00	-2.524*
	통제집단	8	4.50	4.50	18.00	18.00	.000

* $p<.05$

2. 인형치료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

실험집단의 전체 회복탄력성은 유의미하게 증가($Z=-2.524$, $p<.05$)하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인형치료 집단프로그램이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 향상에 매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회복탄력성의 모든 하위요인에서도 대인관계($Z=-2.524$, $p<.05$), 자기조절능력($Z=-2.254$, $p<.05$), 낙관적 태도($Z=-2.243$, $p<.05$)와 같이 모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회복탄력성 차이

항목	집단	N	평균순위		순위합		Z
			음의순위	양의순위	음의순위	양의순위	
대인관계	실험집단	8	.00	4.50	.00	36.00	-2.524*
	통제집단	8	4.29	6.00	30.00	6.00	-1.723
자기조절 능력	실험집단	8	2.00	4.86	2.00	34.00	-2.254*
	통제집단	8	3.83	5.00	23.00	5.00	-1.535
긍정성	실험집단	8	2.00	4.86	2.00	34.00	-2.243*
	통제집단	8	4.63	3.17	18.50	9.50	-.768
전체	실험집단	8	.00	4.50	.00	36.00	-2.524*
	통제집단	8	5.08	2.75	30.50	5.50	-1.752

* $p<.05$

3. 인형치료 집단프로그램 실시 후 보육교사에게 나타난 변화

가. 자신감

(1) 자신감-초기단계

첫 시간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지는 참가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처음 시간에 진행한 ‘자신을 소개하는 명함 만들기’에서는 본인이 직접 발표하지 않고 옆 사람이 대신 읽어주는 방법을 선택했다. 특이했던 것은 참가자 G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서 명함에 많은 부분을 빈 칸으로 남겨두었고, 참가자 H는 자신을 드러내는 일련의 과정이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 하였다.

(2) 자신감-중기 1단계

5회기에서는 귓속말 전달하기, 얼굴표정 전달해서 맞추기, 손바닥 모양에 서로의 장

점 적어주기를 실시하였고, 6회기에서는 신문지쇼로 사행시 만들기, 서로의 몸을 움직이고 조작해 보는 마리오네뜨 놀이, 명령에 따라 몸의 크기를 조절하는 난장이 거인 놀이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참가자 모두의 참여와 협력이 요구되는 것들이었으며, 특히 손바닥 모양에 서로의 장점에 대해 써주었던 활동은 참가자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경험이었다. 평소 동료교사들과 사적인 이야기를 거의 나누지 않던 참가자 G의 변화된 모습이나 뼈가 있는 농담을 자주 사용하던 참가자 A에게서 이런 변화의 모습들이 감지되었다.

“(서로 칭찬해서 색종이 모으기 게임을 했는데 평소 선생님들과 교류가 없던 참가자 G가 너무나 즐거워하며 여기 저기 다니면서 선생님들께 칭찬을 한다.)

G : (A 선생님의 머리를 만지며) 머리가 너무 예쁘다. - 2019년 8월 2일 ”

(3) 자신감-중기 2단계

중기 2단계는 동료들에게 이야기하기 민감한 개인의 가족에 대한 탐색이 주를 이뤘다. 처음 자기인식조차도 부족했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경험 또한 서툴렀기 때문에 참가자 대부분은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없었다. 하지만 회기가 진행될수록 참가자들은 자신의 민감한 속이야기를 털어놓고, 이를 수용 받으며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 이들에게 서로는 안전한 유대감을 느끼게 해주는 대상들이었으며 그 속에서 자신을 조금씩 드러내보고 지지받고 공감 받았던 경험은 관계의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였다. 그런 이유로 7회기에서 9회기까지 참가자들은 자신과 관련된 다양한 사적인 이야기들을 스스럼없이 발표할 수 있었다.

(4) 자신감-말기단계

긍정적 자기상을 찾는 집단프로그램들을 통해 여러 참여자들이 자신감을 갖는 모습들이 자주 관찰되었다. 11회기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의 유형’을 알아보는 시간에는 참가자 F와 참가자 H가 자신들에게 부족한 자신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을 내비치기도 했다.

“F : 나는 리드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결정하기 힘들 때가 많거든요.

H : 재치 있고 유머가 넘쳐 주위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대리만족처럼 내가 소심하고 나서는 걸 싫어해서 그런 사람을 보면 항상 부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요. - 2019년 9월 5일

그리고 그 밖에 후반기 작업을 하는 동안 참가자 E는 자신이 그 동안 숨기만 했던 것을 자각하고 그것을 깨뜨려야 할 필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항상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부끄러워하고 자신 없어 했던 참가자 H는 동료교사들의 지지 속에서 자신의 긍정적 자아를 발견하고, ‘나만의 인형만들기’를 통해 현실에서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나. 자기조절

(1) 자기조절-초기단계

진단평가에서 참가자들은 심리적으로 지치고 방어적인 태도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무의식 속에서 서로 상반되는 대극의 긴장상태가 참가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런 내적심리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참가자 A는 1회기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갱년기와 같아요. 몰러코스터 같다고 할까요. 주어진 상황에 따라 기분이 좌지우지 되요. - 2019년 8월 12일”

(2) 자기조절-중기 1단계

참가자들은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대화를 나누며 그 속에서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게 된다.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다소 민감한 이야기나 놀림에도 화를 내는 모습보다는 유쾌하게 상황을 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나이나 신체적 특징 같이 민감한 소재의 경우에도 화를 내기보다는 즐겁게 받아들였다.

(3) 자기조절-중기 2단계

참가자 B는 자신의 성격이 몰러코스터 같다는 표현을 했고, 감정기복이 심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중기 2단계가 가족탐색이 주를 이루는 단계이므로 참가자 B는 자신의 성격이 가족, 특히 그 중 엄마와 연관이 있을 수 있음을 어렵פות이 인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가족 안에서 분화되지 못한 채 마냥 아이와

같고 싶은 마음이 있는 반면, 성인의 몸으로 어른이라는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참가자 B가 자신을 감정기복이 심한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자기조절-말기단계

참가자 B가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이미지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자신의 이미지를 통해 평소 감정기복이 심한 참가자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상황 : 11회기 나에게 필요한 사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자신과 친구의 가장 큰 차이 : 감정기복이 심해요.

친구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 : 사나워서 고슴도치로 생각할 것 같아요.

나에게 필요한 사람 : 제가 워낙 감정기복이 심한 사람이라 감정기복이 적고 나무 같은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 - 2019년 9월 5일”

하지만 참가자 B는 후반부로 갈수록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통합시키고, 대극에 있던 자아상들을 화해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립과 갈등의 세계에서 평화로운 가족이 되고 싶은 소망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상황 : 12회기 그 동안 자신의 이미지로 고른 동물인형카드들로 새로운 사파리를 꾸미는 상황)

사파리 제목 : 가족

연약한 동물, 강한 동물이 나뉘는 것 없이 평화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 2019년 9월 9일”

이런 참가자 B는 집단프로그램을 마무리 하면서 자신을 재인식하게 되었다고 했다. 평소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집단프로그램을 마치면서는 자신의 장점을 찾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참가자 B는 집단프로그램 말기에 자신이 재미있는 사람이며 유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 어린 아이 같은 모습이 아닌 어른의 모습으로 살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

“(상황 : 나만의 인형을 만들고 나서)

나와 다른 해피한 인형을 만들어 주었어요. 사람은 대체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장점을 잘 모르는 것 같고 저도 그랬어요. - 2019년 9월 11일”

다. 대인관계

(1) 대인관계-초기단계

초기단계에서 참가자들은 그 동안 서로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고, 특히 참가자 D의 경우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사람이들과 어울리기 힘들다고 했다. 집단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초반, 발표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최대한 두드러지지 않기 위해 자신을 감추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 대인관계-중기 1단계

중기 1단계는 게임을 통해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데 특히 6회기에 진행된 ‘마리오네트 게임’은 서로의 몸을 조정하고, 조정 받으며 서로가 일치감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러한 몸을 이용한 놀이는 참가자들이 평상시에 흔하게 경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모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3) 대인관계-중기 2단계

참가자 D는 자기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로 꿈을 선택했고, 가족의 눈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로는 고양이를 선택했다. 가족 내에서 혼자만 유일하게 추운 나라에 사는 북극곰으로 자신을 표현했으며, 가족의 눈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 또한 혼자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고양이를 닮았을 것으로 보아 가족 안에서도 중심에 서지 못하는 참가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9회기에서도 참가자 D는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동생이 태어나 온 가족이 남동생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표현했는데, 이 또한 전자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하지만 D는 자신이 더 이상 책임감으로 가족의 그늘에 설 필요가 없음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중기 2단계에서 평소 선생님들과 교류가 적었던 참가자 D 와 G가 자신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털어놓기 시작했고, 다른 참가자들과도 스스로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는 대인관계 능력에서 필요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자아가 확장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준다.

(4) 대인관계-말기단계

말기단계에서 참가자들은 서로에게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서로를 지지해 준다. 참가자 D 역시 초반에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해하고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 낮설어했다.

먼저 사람들이 참가자 D에 대해 말기단계에서 평가해준 내용은 평상시 자신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과는 다른 평가였다.

“물속을 자유자재로 헤엄치는 민첩한 돌고래와 같아요. 돌고래는 바다의 사는 동물 중에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박수 받는 동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멋지고 충분히 사랑스러운 사람 같아요. - 2019년 9월 2일”

하지만 회기가 진행될수록 참가자 D는 자기 자신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는데, 자신이 남들과 어울려 남을 도울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긍정적 소리를 사람들로부터 들었을 때 같이 어울리고, 문제해결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고 느꼈어요.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들에게 의지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지금까지 난 내가 엄청 썩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남들의 도움이 필요한 약한 면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 2019년 9월 9일”

참가자 D 뿐이 아니라 여러 참가자들에게서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모습들이 보였다. 이들의 이런 모습은 자신들의 내면의 새로운 인식이기도 했으며, 참가자들이 가진 대인관계에 대한 변화의 시작점이기도 했다.

“참가자 C :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한 번 ‘나는 인복이 있는 사람이구나’를 느낄 수 있었어요. 내가 그 동안 만났던 사람 중에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많았음에 감사했고, 나 역시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 2019년 9월 5일”

라. 낙관적 태도

(1) 낙관적 태도-초기단계

참가자 C는 결혼 전, 부모님의 이혼과 재혼으로 일찍 독립을 해서 살았다. 스스로 본인을 챙겨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었는지 매사 실수하지 않아야 한다는 긴장감과 함께 불안이 높은 상태였다.

“(상황 : 3회기 집단사파리를 만들면서 닭을 공격적인 동물로 골랐다.)

C : 너 잘 해야 돼, 너 잘해야 돼. 그런 압박감 있잖아요. 닭이 저에게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게 해주었어. - 2019년 8월 15일”

(2) 낙관적 태도-중기 1단계

중기 1단계 중 5회기는 서로를 칭찬해 주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칭찬에 익숙지 않은 참가자들은 처음에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자신이 기존에 가졌던 자아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바라보려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상황 : 자신에 대한 장점을 써준 손바닥 모형 만들기 시간에 대한 소감으로)

E : 내 큰 목소리가 주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소음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오늘 다른 선생님들의 칭찬을 들어보니 다르게 생각해 보면 누군가에게 전달이 잘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대학 때 방송동아리 활동도 했거든요. - 2019년 8월 19일”

(3) 낙관적 태도-중기 2단계

참가자 G는 둘째 딸과의 관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털어 놓았다. 자신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는 둘째 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통제되지 않는 태도에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회기가 거듭될수록 참가자 G는 둘째 딸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상황 : 7회기에서 가족인형 선택하기에서)

G : 요새 저는 딸하고 많이 부딪치지 않게 됐어요. 그 아이는 사춘기고, 그 아이가 자유분방한 것을 아니까. 이제는 제가 그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리다 보면 조금씩 찾아가겠죠. - 2019년 8월 26일”

(4) 낙관적 태도-말기단계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참가자 H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H는 초반에는 자신의 변화가 없는 삶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었다. 그리고 집단프로그램 참여 자체에 부정적 시각을 갖기도 했다.

“이것을 한다고 달라질 것이 있겠어요? - 2019년 8월 12일”

하지만 말기단계에서 여러 선생님들의 지지와 격려 속에서 참가자 H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선생님은 의외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숨겨진 귀여움이랄까? 그리고 마음이 따뜻하고 선한 사람 같아요. 자신의 것도 양보하기도 할 수도 있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생님의 매력을 알게 되었어요. - 2019년 9월 2일”

참가자 H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생각해 보는 시간에 자신의 소심하고 약한 모습이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바뀌길 희망했다. ‘내편이 되어주는 사람’에서도 이번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는 인정과 지지를 동료로부터 받았다고 했으며, 지금까지 자신이 고른 자아에 대한 이미지를 재구성한 사파리에서도 역시 앞으로 아이들을 잘 케어하면서 일상의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지금까지는 지켜야 할 규칙과 예절을 중요시 생각하며 엄하게 집에서 아이들을 교육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앵무새처럼 자상하고, 말처럼 듬직하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젠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 2019년 9월 9일”

V. 논의 및 결론

이번 연구는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인형치료 집단프로그램이 과연 자아탄력성과 회복탄력성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실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인형치료 집단프로그램은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데, 실험집단을 대상의 경우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로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증가($Z=-2.524, p<.05$)가 있었다. 세부적으로 하위요인들을 살펴보았을 때 역시 대인관계 효율성을 제외한 자신감, 낙관적 태도, 분노조절과 같은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자료와 비교했을 때, 인형치료 집단프로그램이 여성 상담자들의 심리적 소진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최정임, 2018)에 대한 연구

와 대상자만 바뀌었을 뿐 일치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인형치료 집단프로그램은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에서도 역시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회복탄력성의 경우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인형치료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의 값을 비교한 결과 역시 유의미한 증가($Z=-2.524, p<.05$)가 있었으며, 세부적으로 하위요인에서도 대인관계, 자기조절능력, 낙관적 태도에서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인형치료 집단프로그램을 이용해 회복탄력성의 효과성을 연구한 직접적인 자료는 없는 실정이지만 GRIT 등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주제가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와 관련된 주제로 많은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자아탄력성과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을 때, 먼저 모든 참가자들은 초반에 비해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또 자기인식이 부족했던 초반 상태에 비해 자신에 대해 성찰하며 앞으로의 다짐을 다지는 모습들도 보여 주었다.

다음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의 경우 동갑내기인 참가자 A와 B에서 잘 관찰되었는데 회기 중간에 티격태격 싸우던 두 사람이 자신의 말로 상대가 상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무의식을 나타내는 상징체계에서는 대상들이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했다. 참가자 A와 B 이외에도 참가자 C와 E에게서도 자기조절력이 증가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두 참가자 모두는 어릴 때 부모님의 이혼이나 부재를 통해 상처 받는 아이의 모습과 인정받고 싶은 착한 아이의 모습이 모두 관찰되었는데, 본 프로그램을 통해 두 참가자는 이러한 자신들의 내면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를 통해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자신들의 내면의 감정 변화에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

세 번째 하위요인인 대인관계 측면에서는 대표적으로 참가자 D의 경우 초반에 인형 상징체계를 통해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주변을 배회하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데 반해,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감정이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경험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자기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함께 평소 주변사람들과 거의 어울리지 않던 참가자 G의 변화도 눈에 띄었다. 회기를 거듭할수록 자신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지막 하위요인인 낙관적 태도 측면에서 참가자 E는 자신의 큰 목소리가 단점이 아닌 장점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더불어 참가자 G의 경우에는 문제 상황을 만들던 둘째 딸에 대해 조금은 여유를 갖고 낙관적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집단프로그램 자체가 후반부로 갈수록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내용이었으므로 참가자 모두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집단프로그램을 마감했다. 이번 집단프로그램을 마치며 모든 참가자들은 단체 티셔츠를 맞추기로 했고, 같이 1박 2일 강화도로 여행을 가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얻은 연구 결과의 의의는 첫째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과 회복탄력성 증진에 인형치료 집단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양적 연구와 사례 연구 방식으로 살펴본 결과 전체적인 효과성 뿐 아니라 개별적 하위요인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어린이집의 질적 관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평가인증에서도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관리를 주요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보육교사의 정신건강 증진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인형치료 집단프로그램이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보육교사나 교사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찾기 힘들었다.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소수의 교사를 면담한 질적 연구(박은혜, 전셋별, 2010; 이진화, 유준호, 김은희, 2010; Castro, Kelly, & Shih, 2010; Gu & Day, 2007) 정도가 존재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구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의 변화를 측정한 양적연구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존 논문을 바탕으로 각종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펴보면, 현실치료상담을 적용한 집단프로그램이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과 교사-영유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었고(임명진, 2019), 집단미술치료가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고 자아탄력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이었다(김영미, 2016). 에니어그램을 이용한 집단프로그램은 특수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고 교사효능감을 높일 수 있었다(김유진, 류경희, 2013). 자아성장 집단 상담프로그램은 예비유아교사들의 자아존중감과 자아개념을 높여 주었다(이은진, 이길동, 2012). 격려스트로크는 교사의 회복탄력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 개발에 효과적이었다(서은주, 김장희, 2017). 자아탄력성 증진 집단프로그램이 예비 영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과 공감능력에 효과적이었다(박진성, 신현정, 2017). 이렇게 교사의 자아탄력성과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연구 또한 이러한 연장선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드리고자 한

다.

첫째, 본 연구에 실험집단으로 참여한 선생님들이 모두 동일한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제약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비록 집단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안전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가족의 비밀을 이야기 하기에는 약간의 부담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참가자의 구성에 있어 다양성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참여한 인원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그 수도 전체 보육교사를 대표하기에 제한된 인원이 참가하였기에 이번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다수의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15회기라는 집단프로그램이 보육교사가 일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참여하기에 부담이 되는 횟수였다고 생각한다. 본 집단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보육교사가 근무하는 원에서는 자체행사 준비와 2학기 학부모상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후반부로 갈수록 참여에 부담감을 토로하는 참가자들이 발생했다. 이에 각 원의 사정에 맞추어 본 집단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가 단기의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추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사후 측정만으로 집단프로그램 효과의 안정성을 확인하는데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자아탄력성과 회복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집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측정해야 한다.

보육교사에 대한 연구는 영유아 발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집단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영유아 정책이 기존에 영유아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현재는 보육교사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취지와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몇 해 전부터 인천시 같은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마음건강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단위로는 마음성장 프로젝트 같은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보육교사의 자존감과 같은 정신건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집단프로그램 자체가 근무시간에 참석해야 하므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맞지 않아 실제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매뉴얼로 정리된 인형치료 집단프로그램이 또 하나의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권경아(2015). 영아반 교사의 놀이교수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가 교사-영아 상호작용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은주, 조진희(2010). 현실치료 프로그램이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19(3), 235-250.
- 김수연(2019). 청소년의 집단 음악 활동이 회복탄력성과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오케스트라와 합창 활동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미(2016). 집단미술치료가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옥주(2019).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6(2), 51-64.
- 김옥진(2015). 한국화매체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미술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진, 류경희(2013). 에니어그램을 이용한 집단프로그램이 특수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15(2), 129-145.
- 김인숙(2009). 교사의 팔로우업 유형에 따른 원장-교사 교환관계, 자아탄력성, 조직문화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은(2018). 장애유아 담당 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13(2), 95-113.
- 박수경, 하승민(2017).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이직 의도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15(2), 25-49.
- 박은주, 문태영(2011). 유아 교사가 지각하는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 사회적지지가 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31(3), 75-98.
- 박은혜, 전셋별(2010). 유치원 교사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 탐색, 27(1), 253-275.
- 박인숙(2018). 유아의 수줍음 및 두려움 기질,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유아의 양심 발달 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성, 신현정(2017). 예비 영유아교사를 위한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이 자아탄력성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24(2), 151-170.
- 배성현, 박주연, 이병인(2014). 인지·정서·행동 치료(REBT)를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장애유아 통합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21(6), 1449-1473.
- 변미정(2019). 강점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산재근로자의 회복탄력성 및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은주, 김장희(2017). 격려스트로크를 활용한 교사의 회복탄력성 집단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34(3) 221-248.
- 안선희(2011).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이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미치는 효과, 18(5), 1135-1157.
- 안채영(2016). 보육교사의 낙관성 및 사회적 지지가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혜진(2019).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교사효능감의 조절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현숙(2017).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 조직헌신, 소진과 이직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21(1), 113-132.
- 이경숙, 박진야, 김명식(2017). 보육교사의 보육직무스트레스 관리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29(1), 79-101.
- 이금순, 최광현(2018). 인형치료 집단프로그램이 청소년 자녀와 모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16(2), 57-67.
- 이인호(2017). 중학생 학교폭력 경험집단에 따른 공격성, 자아탄력성, 학교적응의 차이.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진, 이길동(2012). 자아성장 집단 상담프로그램 참여가 예비유아교사들의 자아존중감과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32(2), 125-144.
- 이지은(2017). 타악기 연주활동이 재한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와 자아탄력성 증진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명진(2019). 현실치료상담을 적용한 집단프로그램이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과 교사-영유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좌승화, 오정희(2019).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원장의 감성적 리더십의 매개효과, 19(10), 467-486.
- 최광현, 선우현(2016). 인형치료. 서울: 학지사.
- 최광현, 선우현(2017). 또래관계기술과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인형치료 집단프로그램

- 적용효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상징체계 활용-, 15(4), 65-74.
- 최광현, 선우현(2017). 인형진단평가. 한국인형치료학회.
- 최경숙, 송하나(2015). 발달심리학. 서울: 교문사.
- 최윤희(2015). 영유아교육기관 종사자의 자아탄력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정임(2018). 인형치료 집단프로그램이 여성 상담자들의 심리적 소진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8(5), 189-197.
- 한희선, 이보영(2019). 보육교사의 자존감과 직무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10(1), 1-16.
- 황민희, 유경훈(2017). 보육교사의 자아개념과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 18(7), 316-324.
- 홍성역(2012). 어린이집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교사효능감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51(2), 271-281.
- Block, J., & Kremen, A. M.(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49.
- Gu, Q., & Day, C. (2007). Teachers resilience; A necessary condition for effectivenes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3, 1302-1316.
- Lin, F. Y., Rong, J. R., & Lee, T. Y. (2013). Resilience among caregivers of children with chronic conditions; a concept analysis. *Journal of Multidisciplinary Healthcare*, 29(6), 323-333.
- Rutter, M.(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316-331.
- Yalom, I. D., & Leszcz, M. (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logy*.
- 최혜림, 장성숙 역 (2008). 집단정신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하나의학사.

〈Abstract〉

The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Group Figure Therapy Program to for Child Care Center Teachers

Yeom, Chang-hyun-Sunwoo, Hyun
Sunwoo Family Play Therapy Center· Myongj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group figure therapy program has an effect on the child care center teacher's ego-resilience and resilience.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6 teachers working in day care centers located in Seo-gu, Incheon, Korea who agreed to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16 teacher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8 in the experiment group and 8 in the control group and 15 group programs that were introduced through the '2016 Spring Academic Workshop by Korean Association of Figure Therapy' were used. The structured group program was conducted three times a week for two months for 40 minutes at each session, and 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was verified by quantitative analysis and case study. For the quantitative analysis, the ego-resilience measure and the resilience measure were measured pre and post the group sessions and compared using SPSS 21.0 using nonparametric statistical method Wilcoxon coding ranking verification. The case analysis method was examined through looking at the changes in confidence, self-control,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optimistic attitudes, which are considered the sub-factors of ego-resilience and resilienc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group figure therapy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child care teachers' ego-resilience after administering the program.

Second, group figure therapy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child care teachers' resilience after administering the program.

Third, group figure therapy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sub-factors such as confidence, self-control,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optimistic attitude of the child care center teacher after administering the program.

In summary,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group figure therapy program has an effect on the ego-resilience and resilience required to alleviate the job stress of the child care center teachers, and it will be useful as a group program with regards to the psychology of child care center teachers in future.

Key words: day care center, child care center teacher, figure therapy, group figure therapy program, ego-resilience, resilience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대인존재감의 매개효과 - 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 -

허민영*·홍혜영**
명지대학교·명지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부부의 성인애착(불안애착, 회피애착)과 결혼만족도 간 관계에서 대인존재감의 매개효과와 동시에 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매개 모형(APIMeM: Actor and Partner Interdependence Mediation Model)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서울, 충남, 경기, 천안, 강원 등에서 현재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기혼 부부 262쌍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본인의 결혼만족과 본인의 대인존재감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아내 대인존재감에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아내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본인 결혼만족과 본인의 대인존재감에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남편의 결혼만족과 대인존재감에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아내와 남편 모두 자신의 결혼만족에 대인존재감이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둘째, 남편의 불안애착모형과 회피애착모형, 아내의 회피애착모형은 독립변인에서 매개변인으로 가는 경로, 매개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가는 경로에서 모두 자기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아내는 불안애착모형에서 독립변인에서 매개변인으로, 독립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가는 경로에서 자기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셋째, 남편의 대인존재감은 자신의 불안애착, 회피애착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하는 자기효과가 나타났다.

연구를 통해 매개변인인 대인존재감이 남편 자신의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변인임을 확인 하였으며, 남편과 아내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변인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과 제한점,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불안애착, 회피애착, 대인존재감, 결혼만족도, 자기효과, 배우자효과, APIMeM

* 본 연구는 허민영(2018)의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요약한 논문임.

** 교신저자: 홍혜영(hyhong@mju.ac.kr)

■ 게재 신청일 : 2020년 1월 21일 ■ 최종 수정일 : 2020년 2월 22일 ■ 게재 확정일 : 2020년 2월 23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족을 형성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단위는 부부이다. 많은 부부들이 결혼을 통하여 삶의 만족과 성취의 원천이 되기를 기대하며 결혼생활을 시작한다(정문경, 김병석, 2014). 기대한 만큼의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은 부부의 부정적인 생활과 심리적 고통에 완충역할을 하지만, 모든 부부들이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불안정한 결혼생활은 부부의 정서 및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훈구, 2004).

통계청(2016)에서 발표한 최근 10년 동안 이혼율을 살펴보면 혼인지속기간별 이혼 구성 비율이 0~4년의 부부가 22.9%, 5~9년의 부부가 19.2%로 결혼 10년 이하 부부의 이혼율이 전체 구성비에 42.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가족발달단계 중 신혼기와 부모기에 해당하는 결혼 10년 이하 부부는 결혼이후 각자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조율하고, 출산을 통해 2차 체계가 3차 체계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에 해당된다. 가족발달단계에 따른 결혼만족도연구 결과에 의하면 결혼만족도는 U자 곡선을 나타낸다. 이는 자녀출산을 기점으로 결혼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며 부부는 갈등을 겪게 되는데 최근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변화하여 신혼기 무자녀 시기 또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거나 혹은 자녀가 있음에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개인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우선시 여겨 이혼을 손쉽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경향을 반영한다(최경일, 2019).

실제로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결혼 10년 이하 부부의 높은 이혼율을 지지하며 부부관계 갈등으로 인하여 결혼만족도가 현저하게 감소된다고 하였다(나남숙, 이인수, 2017; 박수선, 2013; 오현주, 최승미, 조현, 권정혜, 2012; 최경일, 2019). 오현주 외(2012) 연구에서 “신혼기 부부는 성장배경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두 사람의 조정과 협력이 요구되는 시기로 갈등이 유발될 잠재성이 매우 높고”, 박수선(2013)의 연구에서는 “결혼생활 초기 적응과 부모 됨 준비라는 두 가지 큰 과업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역할 적응이 요구되는 시기로 서로에 대한 이해가 매우 필요한 단계”임을 강조하고 있다. 나남숙, 이인수(2017) 연구에서 “부모기에 들어선 부부들은 자녀를 출산 양육하며 부부간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 지지 않아 부부 갈등의 시발점인 시기”로 나타났으며 이 시기를 지내며 결혼 만족도가 점점 더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혼생활의 부부갈등은 가족문제까지 확대되어 자녀들의

행동,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 되며(이훈구, 2004), 자녀들의 애정학습 표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조아라, 오제은,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 10년 이하 부부의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결혼만족도란 결혼생활에 대해 부부가 추구하는 욕구와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 했는가를 나타내는 주관적인 감정과 태도이며(현미나, 채규만, 2012), 결혼만족의 기준이란 결혼생활이 종결되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과 비교하였을 때 현재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더 만족스럽고 이롭다고 고려되는 주관적인 상태이다(권정혜, 채규만, 1999). 이처럼 만족스러운 결혼생활 속에서는 결혼을 종식 시켜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결혼만족은 안정적인 결혼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소라 할 수 있다(김희진, 2004).

결혼만족도에 관한 많은 연구들에서도 관계의 친밀감을 효과적으로 설명해주는 성인애착이론은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인임을 여러 연구에서 설명하고 있어 부부간의 강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관계를 성인애착이론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이희숙, 박경, 2008; 정경아, 김봉환, 2008; Butzer, Bethany, and Lorne Campbell, 2008). 성인애착은 애착의 주요 동기의 측면에서 성인이 되면서 부모가 아닌 연인이나 부부와 같은 친밀한 관계로 확대 된다. 성인애착은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두 차원으로 보는데, 불안애착의 특성으로는 타인에게 거절당하거나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으로 타인의 관심과 인정에 지나치게 몰입하며 관계에 대해 과도한 욕구를 나타내고, 회피애착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친밀함을 불편해하고 타인 의존성에 대해 거부하며 과도한 자기 의존성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두 차원 모두 대인관계 안에서 불편함을 경험하는데 불안애착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확신 부족으로 기인한 부정정서를 경험하는 반면, 회피애착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불편함으로 인하여 정서적 교류를 차단하여 스트레스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Mikulincer, Mario, and Phillip R, Shaver, 2003). 회피애착과 불안애착 성향이 모두 낮을 때 안정애착으로 볼 수 있지만, 두 차원 중 어느 한 차원의 성향이라도 높은 경우 불안정 애착으로 분류된다(이경인, 허난설, 최수미, 2017).

부부연구자들은 부부의 애착과 결혼만족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고하였으며 유아와 주 양육자의 상호애착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부관계에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봉착했을 때 배우자가 가까이에서 안전한 기지와 같은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하였다(Collins, Nancy L., and Brooke C. Feeny, 2000). 안정애착을 가진 성인은 결혼관계에서 높은 만족감

을 보고 하였으며,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을 가진 성인은 결혼관계에서 낮은 만족감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유수진, 류정희, 2017; 최영아, 박경, 2017; Butzer, Bethany, and Lorne Campbell, 2008).

국내 선행연구에서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모두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주었다(김수민, 이지연, 2015; 정경아, 김봉환, 2010; 현미나, 채규만, 2012). Bartholomew(1990)는 불안애착 유형은 타인이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과도한 근접성 추구 행동을 보이면서 배우자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되고, 회피애착 유형은 배우자가 자신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아예 기대하거나 지지받고자 하지 않는다. 이렇듯 애착은 친밀한 관계를 대상으로 형성 및 유지되므로 성인기동안 가장 친밀하면서도 오랜 기간 지속되는 부부관계에 성인애착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오현주, 최승미, 조현, 권정혜, 2012).

부부의 성인애착과 결혼만족간의 밀접한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으나, 성인애착이 어떠한 기제를 통해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부부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역동을 이해하고 애착이 불안정한 개인들의 결혼 만족을 높이기 위해 관련변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우수정, 이영, 2010). 최근의 학자들은 부부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함께하는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 자체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개인내적 특성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함을 밝히면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변인에 대한 재탐색이 요구되고 있다(Collins, Nancy L., and Brooke C. Feeney, 2000).

안정애착의 특질을 보여주며 개인의 심리 내적 특성을 반영하는 대인존재감은 타인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을 대표하며, 대인존재감을 지각하는 것은 개인에게 인지되는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최한나, 임윤선, 2013). 대인존재감은 Rosenberg가 Sullivan의 주요 타자(significant other)의 개념을 바탕으로 자기개념(self-concept)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제안한 개념이다. 대인존재감을 처음으로 제안한 Rosenberg와 McCullough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에게 격정하며, 나에게 의지한다는 느낌과 나를 그들의 확장된 자아(ego-extension)로 경험한다는 느낌”이라고 정의하였다. Elliott 등(2004)은 대인존재감을 세 가지 하위요인 ‘알아봄(awareness)’, ‘의지(reliance)’, ‘중요성(importance)’으로 개념화했다. ‘알아봄’이란 타인이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지에 대한 감각을 의미한다. 두 번째 ‘의존은’ 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이 자신들이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그 개인에게 의지할 때 타인에게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중요성’은 한 개인이 타인들로부터 중요한 존재로 경험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은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더 친밀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최한나와 임운선(2013)은 Elliott(2004)의 대인존재감 하위요인을 바탕으로 대인존재감 척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번안하였는데, 타당화 과정에서 “알아봄”, “의지”, “중요성” 요인을 각각 “알아봄”, “상호의지”, “관심”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는 한국적 상황에서 도움의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뚜렷이 인식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호의지적인 관계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대인존재감을 구성하는 하나의 개념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국내에서 대인존재감이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의지한다는 인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인존재감은 실제로 타인이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객관적인 지표와 상관없이 개인 스스로가 타인에게 중요하다는 심리내적 인식이 없으면 자신이 중요하다는 경험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즉 대인관계역동으로부터 시작하며 동시에 자신과 자아개념에 대한 내적인 신념을 형성한다(최한나, 임운선, 2013). Raque-Bogdan 등(2011)의 연구에서는 성인애착과 대인존재감이 부적으로 상관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는 불안애착이 높은 개인은 타인과 자신의 관계에 관한 걱정이나 불만족에 기인하여 대인존재감을 낮게 평가하고, 회피애착이 높은 개인은 중요한 타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의 평가 절하와 친밀감에 대한 불편감에 기인하여 그들의 대인존재감을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임운선, 2013). 최근 국내에서 성인애착과 대인존재감을 매개로한 선행연구에서 불안애착, 회피애착이 대인존재감에 부적영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송가미, 박희현, 2016; 임운선, 2013).

대인존재감은 관계의 주체로서 개인이 느끼는 만족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가장 친밀한 배우자와 관계에서 만족감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중요한 변인임이 예측된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Mak, Leanne 등(2004)은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인존재감이 개인의 이성 관계 만족도에 정적영향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관계 안에 지각된 대인존재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성 관계 만족도에 부분매개 한다고 보고”하였다(Mak, Leanne, 2004 재인용). 이성 관계 만족도와 결혼만족도는 다른 변인이지만 가장 친밀한 이성과의 관계만족이라는 점에서 부부관계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대인존재감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부부의 ‘관계’에 관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결혼만족이라는 변인을 다루는 데 있어 부부를 ‘커플’이 아닌 분리된 ‘개인’으로 간주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현재까지 진행된 성인애착과 결혼만족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사수연, 2016; 윤귀연, 2014; 정경아, 2009; 최영아, 박경, 2017; 현미나, 최규만, 2012)에서는 연구 대

상을 기혼자 한 개인을 대상으로 연구되었으며 분석방법의 제한점을 제시하였으며 부부관계의 상호 역동성을 고려하여 자기효과-상대방 효과 검증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실제로 상호 역동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바탕으로 부부를 쌍으로 표집한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Koen Ponnet, Dimitri Mortelmans, Edwin Wouters, Karla Van Leeuwen, Kim Bastaits and Inge Pasteels, 2013). 이러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은 Cook와 Kenny(2005)가 제안한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PIM: actor and partner interdependent model)으로 APIM은 한쌍의 부부는 한 집단을 나타내며 여러 부부의 자료를 통해 부부 사이에 주고 받는 영향관계를 모델링 함으로, 부부의 상호작용을 살피는데 유용한 모형이다.

APIM에는 두 가지 구성요소인 자기효과(Actor effect)와 상대방(배우자)효과(Partner effect)가 있다. 자신의 특성(X)이 자신의 결과(Y)에 미치는 것을 자기효과, 자신의 특성(X)이 상대방(배우자)의 결과(Y')에 미치는 것 또는 상대방의 특성(X')이 자신의 결과(Y)에 미치는 것을 상대방(배우자)효과(Partner effect)라고 한다(Ledermann, Macho, & Kenny, 2011). 최근 APIM에서 매개 및 조절요인을 포함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확장된 다양한 모형이 제시되었는데, 특히 매개변인을 사용한 연구를 위해 Ledermann, Macho와 Kenny(2011)가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매개모형(APIMeM: Actor and Partner Interdependence Mediation Model)을 제시하였다. APIMeM은 독립변인(X)과 매개변인(M), 종속변인(Y)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편과 아내의 자료를 분류하여 총 6개의 변인이 생성되고 6개의 자기효과와 6개의 배우자효과가 나타난다. APIMeM 모형에서는 배우자효과를 구분하기 위해 설명된 변인이 참조하는 짝 자료의 구성원을 기준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남편의 독립변인(X1)에서 아내의 매개변인(M2)으로의 효과를 아내의 배우자효과, 아내의 독립변인(X2)에서 남편의 매개변인(M1)으로 가는 효과를 남편의 배우자효과로 표현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매개변인을 포함하여 분석하기 위해 APIM의 확장모델로 Ledermann, Macho와 Kenny(2011)가 제안한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매개모형(APIMeM: Actor and Partner Interdependence Mediation Model)을 적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애착의 두차원(불안애착, 회피애착)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에서 그 과정을 매개하는 대인존재감의 메커니즘이 부부관계에서 자기와 배우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관한 과정을 살펴봄으로서 대인존재감의 임상적 유용성을 이해하고자 하였고, 더 나아가 부부관계 및 결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상담 장면 또는 부부 상담에서 상담자의 치료 개입에 필요한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인애착과 대인존재감, 결혼만족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부의 불안애착과 대인존재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부부의 회피애착과 대인존재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부부의 불안애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대인존재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5. 부부의 회피애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대인존재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충남, 경기, 천안, 강원 등 현재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그 중 273쌍이 회수되었으며 부부 한 쌍 중 한명이 미 응답이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1쌍의 자료를 제외하고 262쌍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나이는 35.88세였으며(남편=36.79세, SD=4.51, 범위=25~48세/ 아내=34.96세, SD=3.97, 범위=26~49세) 평균결혼생활은 5년 1개월(범위=2개월~10년8개월)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현황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현황 (N=262쌍)

구분	빈도(백분율)			
	남편	아내	전체	
연령대	29~34세	79(30.2)	123(46.9)	202(38.5)
	35~39세	112(42.7)	108(41.2)	220(42.0)
	40세 이상	71(27.1)	31(11.8)	102(19.5)
결혼 상태	초혼	262(100)		
결혼 연수	0개월~4년 이하	136(51.9)		
	5년~10년 이하	126(48.1)		

자녀 여부	없음	73(27.9)		
	있음	189(72.1)		
자녀수	0명	72(27.5)		
	1명	86(32.8)		
	2명	98(37.4)		
	3명	6(2.3)		
교육 정도	대학교 졸업 이하	71(27.1)	85(32.4)	156(29.8)
	대학교 졸업	140(53.4)	126(48.1)	266(50.8)
	대학원 이상	51(19.5)	51(19.5)	102(19.5)
가정소득 (부부합산) (단위:만원)	100 이하	1(0.4)		
	100~200 이하	7(2.7)		
	200~300 이하	52(19.8)		
	300~400 이하	43(16.4)		
	400 이상	159(60.7)		
종교	불교	22(8.4)	22(8.4)	44(8.4)
	기독교	113(43.1)	115(43.9)	228(43.5)
	천주교	33(12.6)	39(14.9)	72(13.7)
	무교	92(35.1)	83(31.7)	175(33.4)
	기타	2(0.8)	3(1.1)	5(1.0)

2. 측정 도구

가. 성인애착척도(ECR-Revised:ECR-R)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Fraley, Brennan, Waller(2000)이 문항반응 이론을 활용하여 개정한 ECR-R을 김성현(2004)이 변안한 친밀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ECR-Revised:ECR-R)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2개의 독립된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안애착은 관계에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버림받고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회피애착은 친밀해지는 것을 꺼리거나 불편해 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각 하위 차원별로 18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7점 Likert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수준이 높고 애착이 불완전함을 의미한다. 전체 점수의 범위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각각에서 18~126점이다. 본 연구에서 예비조사 실시 후 문항의 가독성을 보완하기 위해 1번 문항 내용에 주어진 ‘나는’ 을 추가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 s α)는 남편 .89, 아내 .87 로 나타났다.

나. 결혼만족도 척도(Korea-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K-MSI)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Snyder(1979)이 개정한 결혼만족도검사(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Revised: MSI-R)을 권정혜과 최규만(1999)이 변안한 한국 결혼만족도 검사(K-MSI)를 사용하였다. K-MSI는 160문항으로 타당도를 측정하는 2개 척도와 결혼만족도를 측정하는 12개의 소척도로 모두 14개 하위척도로 이루어져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척도 중에 전반적인 불만족척도(General Dissatisfaction Scale; GDS)를 사용하였다. GDS는 전반적인 관계에 대한 불만족, 이혼이나 별거 등 부부관계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 기대를 기술하였으며 총 22문항으로 원래는 2점 척도이나 본 연구에서는 이희숙과 박경(2008)이 변인의 변량을 확대하여 측정하기 위해 5점 Likert 척도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 12개 문항은 역 채점 하였으며, 전체 채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 s α)는 남편 .91, 아내 .93으로 나타났다.

다. 한국판 대인존재감 척도(Korean-Version of Mattering Scale)

대인존재감을 측정하기 위해 Elliott, Kao, Grant(2004)가 개발한 척도를 최한나, 임윤선(2013)이 변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대인존재감 척도(Korean-version Mattering Scale)를 사용하였다. 최한나, 임윤선(2013)은 한국의 정서나 문화적인 환경에 맞추어 하위척도를 재구성 하였는데, 이 척도는 타인이 자신의 존재를 알아보는 정도를 의미하는 ‘알아봄’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이 자신에게 의지한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상호의지’, 한 개인이 타인에게 중요하게 인식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관심’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아주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존재감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 s α)는 남편 .91, 아내 .87로 나타났다. 구체적 하위척도 신뢰도는(Cronbach' s α) 알아봄 남편 .87, 아내 .81, 상호의지 남편 .76, 아내 .70, 관심 남편 .87, 아내 .81 이었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SPSS 21.0과 AMOS 21.0, Mplus 6.0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둘째, 평균,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해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고, 정규성 검정을 위해 왜도와 첨도의 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남편과 아내의 각 주요변인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부부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Kenny, Kashy와 Cook(2000)이 제시한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APIM)을 적용하여, 부부를 한 쌍으로 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변수 값을 표준화 시키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 집단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따라 표준화점수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애착 모형, 회피애착 모형을 표본의 전체를 대상으로 변인별 표준화 값(Z)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표준화 계수(β)을 산출하였다. 다섯째, 매개요인을 포함하여 부부의 자기-배우자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매개 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ediation Model; APIMeM)을 검증하였다. 여섯째, 검증된 부부의 자기효과-배우자효과에서 남편과 아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등가제약 모형을 설정하여 기본모형과 차이가 자유도 1을 기준으로한 모수치 값을 추정하여 경로계수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일곱째, 부트스트랩(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매개효과들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자료의 일반적인 경향성과 정상성 확인을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분석하였다.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았기에 정규분포임을 가정할 수 있으며, 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남편의 불안애착은 본인의 결혼만족($r=-.24, p<.01$)과 본인의 대인존재감($r=-.49, p<.01$)에 부적 상관을 보였다. 남편의 회피애착은 본인의 결혼만족($r=-.23, p<.01$)과 본인의 대인존재감($r=-.47, p<.01$)에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아내의 회피애착($r=.13, p<.05$)과는 정적 상관을, 아내의 대인존재감($r=-.12, p<.05$)과 상호의지($r=-.16, p<.05$)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남편의 결혼만족은 본인의 대인존재감($r=.39, p<.01$)

에 정적 상관을, 아내의 회피애착($r=-.17, p<.01$)과 부적 상관을 아내의 결혼만족($r=.56, p<.01$)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남편의 대인존재감은 아내의 회피애착($r=-.14, p<.05$)과 부적 상관을, 아내 결혼만족($r=.12, p<.05$)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아내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본인의 결혼만족($r=-.27, p<.01, r=-.19, p<.01$)과 본인의 대인존재감($r=-.36, p<.01, r=-.41, p<.01$)에 부적 상관을 보였다. 아내의 결혼만족은 본인의 대인존재감($r=.22, p<.01$)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대인존재감의 하위요인으로 남편의 알아봄은 아내의 알아봄($r=.13, p<.05$)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남편의 상호의지는 아내의 회피애착($r=-.13, p<.05$)과 부적 상관을 아내의 결혼만족($r=.14, p<.05$)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남편의 관심은 아내의 회피애착($r=-.16, p<.05$)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표 2〉 주요변인 간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결과

	1_1	1_2	2	3	3_1	3_2	3_3	4_1	4_2	5	6	6_1	6_2	6_3
1-1. 남편_불안 애착	1													
1-2. 남편_회피 애착	.27*	1												
2. 남편_결혼만 족	-.24	-.23	1											
3. 남편_대인존 재감	-.49	-.47	.39*	1										
3-1. 남편_알 아봄	-.55	-.41	.38*	.89*	1									
3-2. 남편_상 호의존	-.38	-.42	.33*	.90*	.67*	1								
3-3. 남편_관 심	-.29	-.41	.29*	.81*	.54*	.69*	1							
4-1. 아내_불안 애착	.05	-.07	-.08	-.02	-.01	-.05	.01	1						
4-2. 아내_회피 애착	-.04	.13*	-.17	-.14	-.10	-.13	-.16	.26*	1					
5. 아내_결혼만 족	-.04	-.05	.56*	.12*	.12	.14*	.06	-.27	-.19	1				
6. 아내_대인존 재감	-.05	-.12	.10	.11	.08	.11	.09	-.36	-.41	.22*	1			
6-1. 아내_알 아봄	-.10	-.06	.11	.11	.13*	.10	.05	-.39	-.37	.22*	.84*	1		

6-2. 아내_상 호의존	.04	-.16	.10	.08	.05	.09	.07	-.28	-.34	.21*	.84*	.52*	1
		*						**	**	*	*	*	
6-3. 아내_관 심	-.04	-.10	.03	.05	-.02	.08	.10	-.15	-.27	.08	.75*	.41*	.57*
								*	**		*	*	*
평균(M)	2.45	3.69	4.12	3.79	3.95	3.84	3.43	2.43	3.61	3.96	3.81	3.88	3.93
													3.50
표준편차(SD)	.78	.83	.58	.52	.64	.52	.67	.76	.84	.66	.41	.53	.43
													.59
왜도(skewness)	.63	.13	-.86	-.65	-.92	-.70	-.05	.74	.08	-.75	-.42	-.39	-.69
													-.25
첨도(Kurtosis)	.86	.66	.44	1.69	1.95	1.08	.36	.68	-.16	.13	.36	.35	1.18
													.50

주. N = 262,

*p<.05, **p<.01

2. 측정모형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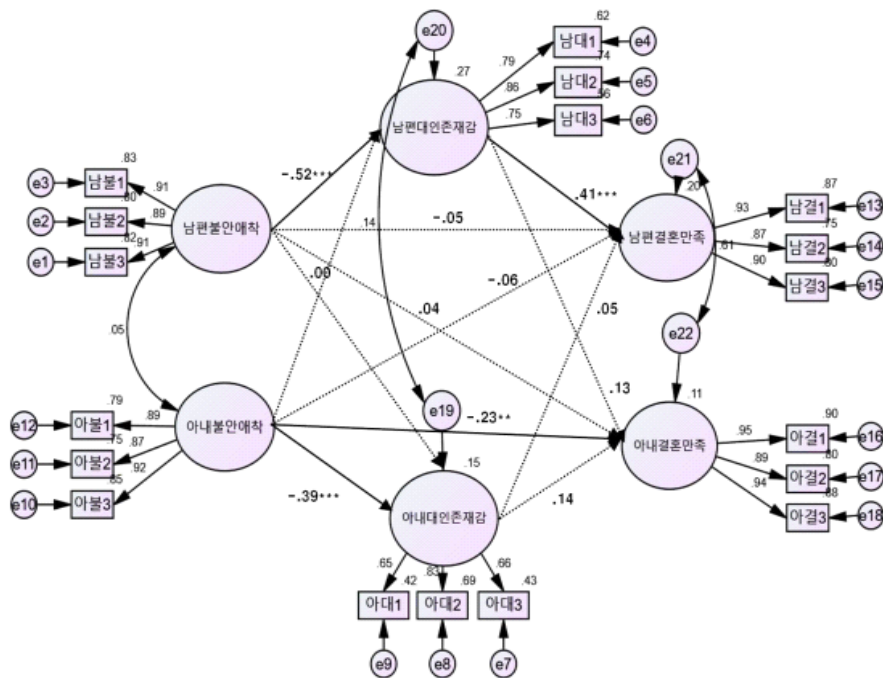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변인들이 남편과 아내의 각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대인존재감, 결혼만족도 잠재변인들을 적절하게 구인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주요 적합지수들이 기준(.90)이하로 낮아져 수용할 수 없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문항꾸러미를 제작하였다. 이를 위해 최대우도추정법을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을 묶는 과정으로 항목과 구성개념간의 균형을 이용한 기법을 사용하여 문항을 묶었다. 본 연구에서 각 척도의 꾸러미 요인 부하량은 남편의 불안애착 .89~.91, 아내의 불안애착 .87~.92, 남편의 회피애착 .81~.88, 아내의 회피애착 .72~.88, 남편의 대인존재감은 .75~.86, 아내의 대인존재감 .65~.83, 남편의 결혼만족도 .87~.93, 아내의 결혼만족도 .89~.95 로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측정모형을 검증한 결과 불안애착 측정모형은 $\chi^2(df=120, N=262)=187.491$, TLI=.975, CFI=.980, RMSEA=.046(90% 신뢰구간=.033~.059), 회피애착 측정모형은 $\chi^2(df=120, N=262)=155.657$, TLI=.985, CFI=.988, RMSEA=.034(90% 신뢰구간=.015~.048)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3. 불안애착 모형 검증

가. 구조모형 적합도 검증

불안애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대인존재감이 매개하는 모형을 검증한 결과, $\chi^2=187.491$ 이었으며, $df=120$ CFI=.980, TLI=.975, RMSEA=.046(90%신뢰구간, .033 ~.059)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모형의 계수를 확인한 결과는 <그림 1><표 3>과 같다. 남편 불안애착이 남편 대인존재감으로 가는 직접경로($\beta =-.520$, $p<.001$)와 아내 불안애착이 아내 대인존재감으로 가는 직접경로($\beta =-.393$, $p<.001$), 아내 불안애착이 아내 결혼만족으로 가는 직접경로($\beta =-.229$, $p<.01$), 남편 대인존재감이 남편 결혼만족으로 가는 직접경로($\beta =.405$, $p<.001$)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숫자는 표준화계수
 ** $p<.01$, *** $p<.001$

<그림 1> 불안애착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표 3〉 불안애착 구조모형 경로계수 결과

경로	B	β	S.E.	t
남 불안애착 → 남 대인존재감	-.341	-.520	0.045	-7.632** *
남 불안애착 → 여 대인존재감	.001	.002	0.045	0.03
여 불안애착 → 남 대인존재감	-.005	-.007	0.042	-0.118
여 불안애착 → 여 대인존재감	-.205	-.393	0.04	-5.124** *
남 불안애착 → 남 결혼만족	-.036	-.046	0.058	-0.61
남 불안애착 → 여 결혼만족	.034	.039	0.068	0.506
여 불안애착 → 남 결혼만족	-.046	-.057	0.055	-0.829
여 불안애착 → 여 결혼만족	-.208	-.229	0.064	-3.239**
남 대인존재감 → 남 결혼만족	.481	.405	0.097	4.961***
남 대인존재감 → 여 결혼만족	.173	.129	0.109	1.591
여 대인존재감 → 남 결혼만족	.074	.048	0.116	0.636
여 대인존재감 → 여 결혼만족	.243	.139	0.136	1.7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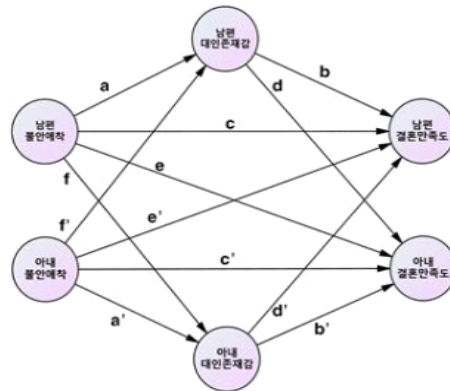
주. 남=남편, 여=아내,

** $p < .01$, *** $p < .001$

나. 등가제약 모형 검증

등가제약은 남편과 아내 각각 경로계수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모형 내에 존재하는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과 동일성제약을 하지 않은 모형(기본모형)을 비교한다. 남편과 아내의 자기효과 배우자 효과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모형 내에 존재하는 열두 개의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열두 개 경로를 비교하였다.

남편과 아내에 따라 불안애착 모형에서 자기효과 및 배우자효과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총 12번의 등가제약을 실시했다. 등가제약 경로는 <그림 2>와 같다. 등가제약을 가한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12개의 등가제약 경로 중 5개의 경로에서 남편과 아내의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불안애착이 대인존재감에 미치는 자기효과 비교($a=a'$)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Delta x^2=4.627, p<.05$), 불안애착이 대인존재감에 미치는 영향이 남편에게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편 대인존재감에 미치는 불안애착의 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a=f'$)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Delta x^2=27.95, p<.001$), 이는 남편의 대인존재감에 자기효과인 자신의 불안애착이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뜻한다.



〈그림 2〉 불안애착 등가제약모형

셋째, 아내 대인존재감에 미치는 불안애착의 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a'=f$)에서 차이를 보였고($\Delta\chi^2=15.743, p<.001$), 이것은 아내의 대인존재감에 자기효과인 자신의 불안애착이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남편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대인존재감의 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 비교 ($b=d'$)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Delta\chi^2=6.055, p<.05$), 이는 남편 자신의 대인존재감이 자기효과인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불안애착의 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c'=e$)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Delta\chi^2=6.194, p<.05$),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자기효과인 불안애착이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외 등가제약 모형 간에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불안애착 기본모형과 등가제약 모형간의 χ^2 차이검증

모형	χ^2	df	CFI	TLI	RMSEA	χ^2 차이검증
기본모형	187.491	120	0.98	0.975	0.046	
(1) 등가제약(a=a')	192.118	121	0.979	0.974	0.047	$\chi^2(1)=4.627, p<.05$
(2) 등가제약(b=b')	189.303	121	0.98	0.975	0.047	$\chi^2(1)=1.812, p>.05$
(3) 등가제약(c=c')	191.19	121	0.98	0.974	0.047	$\chi^2(1)=3.699, p>.05$
(4) 등가제약(a=f')	215.442	121	0.973	0.965	0.055	$\chi^2(1)=27.95, p<.001$
(5) 등가제약(a'=f)	203.234	121	0.976	0.97	0.051	$\chi^2(1)=15.743, p<.001$
(6) 등가제약(b=d')	193.546	121	0.979	0.973	0.048	$\chi^2(1)=6.055, p<.05$
(7) 등가제약(b'=d)	187.629	121	0.981	0.975	0.046	$\chi^2(1)=0.138, p>.05$
(8) 등가제약(c=e')	187.505	121	0.981	0.976	0.046	$\chi^2(1)=0.014, p>.05$
(9) 등가제약(c'=e)	193.685	121	0.979	0.973	0.048	$\chi^2(1)=6.194, p<.05$
(10) 등가제약(f=f')	187.503	121	0.981	0.976	0.046	$\chi^2(1)=0.012, p>.05$
(11) 등가제약(d=d')	187.842	121	0.981	0.975	0.046	$\chi^2(1)=0.351, p>.05$
(12) 등가제약(e=e')	188.292	121	0.98	0.975	0.046	$\chi^2(1)=0.801, p>.05$

주. (1) 불안애착이 대인존재감에 미치는 자기효과 비교(a=a'), (2) 대인존재감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 비교(b=b'),

(3) 불안애착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 비교(c=c'), (4) 남편 대인존재감에 미치는 불안애착의 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 비교(a=f'), (5) 아내 대인존재감에 미치는 불안애착의 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 비교(a'=f), (6) 남편 결혼만족에 미치는 대인존재감의 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 비교(b=d'), (7) 아내 결혼만족에 미치는 대인존재감의 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 비교(b'=d), (8) 남편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불안애착의 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 비교(c=e'), (9) 아내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불안애착의 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 비교(c'=e), (10) 불안애착이 대인존재감에 미치는 배우자효과 비교(f=f'), (11) 대인존재감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배우자효과 비교(d=d'), (12) 불안애착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배우자효과 비교(e=e').

다. 불안애착 매개효과 검증

부부의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존재감이 매개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Mplu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원자료(N=262)로부터 1,000개의 표본을 생성하고 간접효과의 크기를 신뢰구간 95%로 설정하였을 때 영가설이 설정한 값이 0을 포함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개별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남편 불안애착과 남편 결혼만족도간의 관계에서 남편 대인존재감을 매개로하는 경로계수가 $-0.160(p<.001)$ 95% 신뢰구간 $-0.270 \sim -0.079$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불안애착 매개모형 개별 간접효과 유의성 검정

경로			estimate	95% 신뢰구간	
				low	upper
남 불안 애착	→	남 대인존재감 → 남 결혼만족	-.160***	-.270	-.079
	→	여 대인존재감 → 남 결혼만족	.000	-.010	.014
	→	여 대인존재감 → 여 결혼만족	.000	-.023	.024
	→	남 대인존재감 → 여 결혼만족	-.057	-.138	.020
여 불안 애착	→	여 대인존재감 → 여 결혼만족	-.048	-.142	.010
	→	남 대인존재감 → 여 결혼만족	-.001	-.021	.016
	→	남 대인존재감 → 남 결혼만족	-.002	-.043	.042
	→	여 대인존재감 → 남 결혼만족	-.015	-.081	.031

주. 남=남편, 여=아내, 숫자는 비표준화 계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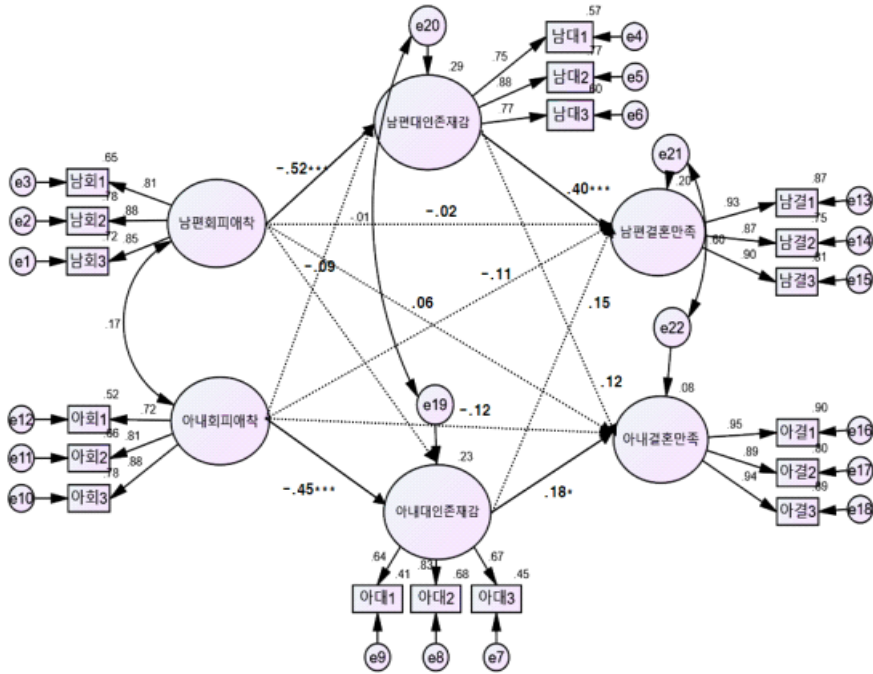
***p<.001

4. 회피애착 모형 검증

가. 구조모형 적합도 검증

회피애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대인존재감이 매개하는 모형을 검증한 결과, $\chi^2=155.657$, $df=120$, $CFI=.988$, $TLI=.985$ 로 $RMSEA=.034$ (90%신뢰구간, .015~.048)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으며, 모형의 계수는 <그림 3><표 6>과 같다.

남편 회피애착이 남편의 대인존재감으로 가는 직접경로($\beta =-.516$, $p<.001$)와 아내 회피애착이 아내 대인존재감으로 가는 직접경로($\beta =-.450$, $p<.001$), 남편의 대인존재감이 남편 결혼만족으로 가는 경로($\beta =.395$, $p<.001$), 아내 대인존재감이 아내 결혼만족으로 가는 직접경로($\beta =.182$, $p<.05$)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숫자는 표준화계수
* $p < .05$, *** $p < .001$

〈그림 3〉 회피애착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표 6〉 회피애착 구조모형 경로계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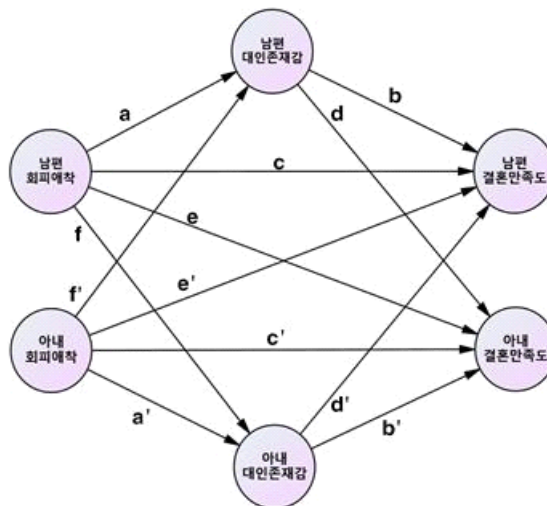
경로	B	β	S.E.	t
남 회피애착 → 남 대인존재감	-.325	-.516	.046	-7.104***
남 회피애착 → 여 대인존재감	-.046	-.090	.036	-1.282
여 회피애착 → 남 대인존재감	-.056	-.089	.041	-1.375
여 회피애착 → 여 대인존재감	-.234	-.450	.042	-5.534***
남 회피애착 → 남 결혼만족	-.013	-.017	.062	-0.214
남 회피애착 → 여 결혼만족	.057	.064	.072	0.788
여 회피애착 → 남 결혼만족	-.090	-.113	.06	-1.491
여 회피애착 → 여 결혼만족	-.106	-.119	.071	-1.503
남 대인존재감 → 남 결혼만족	.493	.395	.103	4.795***
남 대인존재감 → 여 결혼만족	.172	.122	.116	1.474
여 대인존재감 → 남 결혼만족	.023	.015	.12	0.189
여 대인존재감 → 여 결혼만족	.313	.182	.143	2.185*

주. 남=남편, 여=아내,
* $p < .05$, *** $p < .001$

나. 등가제약 모형 검증

회피애착 모형에서 남편과 아내에 따라 자기효과 및 배우자효과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총 12번의 등가제약을 실시했다. 등가제약 경로는 <그림 4>와 같다.

첫째, 남편 대인존재감에 미치는 회피애착의 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 비교($a=f$)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Delta x^2=17.409, p<.001$), 이는 남편의 대인존재감에 자기효과인 자신의 회피애착이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뜻한다. 둘째, 아내 대인존재감에 미치는 회피애착의 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 비교($a'=f'$)에서 남편과 아내가 차이가 났는데($\Delta x^2=10.262, p<.001$), 이것은 아내의 대인존재감에 자기효과인 자신의 회피애착이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남편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대인존재감의 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 비교($b=d$)에서 차이가 났는데($\Delta x^2=8.83, p<.05$), 이는 남편 자신의 대인존재감이 자기효과인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외 등가제약 모형 간에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4> 회피애착 등가제약 모형

〈표 7〉 회피애착 기본모형과 등가제약 모형 간의 χ^2 차이검증

모형	χ^2	df	CFI	TLI	RMSEA	χ^2 차이검증
기본모형	155.657	120	0.988	0.985	0.034	
(1) 등가제약(a=a')	157.734	121	0.988	0.984	0.034	$\chi^2(1)=2.077, p>.05$
(2) 등가제약(b=b')	156.663	121	0.988	0.985	0.034	$\chi^2(1)=1.006, p>.05$
(3) 등가제약(c=c')	156.616	121	0.988	0.985	0.034	$\chi^2(1)=0.959, p>.05$
(4) 등가제약(a=f')	173.066	121	0.982	0.978	0.041	$\chi^2(1)=17.409, p<.001$
(5) 등가제약(a'=f)	165.919	121	0.985	0.981	0.038	$\chi^2(1)=10.262, p<.001$
(6) 등가제약(b=d')	164.487	121	0.985	0.981	0.037	$\chi^2(1)=8.83, p<.05$
(7) 등가제약(b'=d)	156.253	121	0.988	0.985	0.033	$\chi^2(1)=0.596, p>.05$
(8) 등가제약(c=e')	156.415	121	0.988	0.985	0.033	$\chi^2(1)=0.757, p>.05$
(9) 등가제약(c'=e)	158.159	121	0.987	0.984	0.034	$\chi^2(1)=2.502, p>.05$
(10) 등가제약(f=f')	155.69	121	0.988	0.985	0.033	$\chi^2(1)=0.033, p>.05$
(11) 등가제약(d=d')	156.457	121	0.988	0.985	0.034	$\chi^2(1)=0.8, p>.05$
(12) 등가제약(e=e')	158.029	121	0.988	0.984	0.034	$\chi^2(1)=2.372, p>.05$

주. (1) 회피애착이 대인존재감에 미치는 자기효과 비교(a=a'), (2) 대인존재감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 비교(b=b'),

(3) 회피애착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 비교(c=c'), (4) 남편 대인존재감에 미치는 회피애착의 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 비교(a=f'), (5) 아내 대인존재감에 미치는 회피애착의 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 비교(a'=f), (6) 남편 결혼만족에 미치는 대인존재감의 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 비교(b=d'), (7) 아내 결혼만족에 미치는 대인존재감의 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 비교(b'=d), (8) 남편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회피애착의 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 비교(c=e'), (9) 아내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회피애착의 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 비교(c'=e), (10) 회피애착이 대인존재감에 미치는 배우자효과 비교(f=f'), (11) 대인존재감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배우자효과 비교(d=d'), (12) 회피애착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배우자효과 비교(e=e').

다. 회피애착 매개효과 검증

회피애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대인존재감의 매개하는 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표 8>과 같으며, 남편의 회피애착과 남편 결혼만족도간의 관계에서 남편 대인존재감을 매개로하는 경로계수가 $-.160(p<.001)95\%$ 신뢰구간 $-.266\sim-.077$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 자신의 회피애착은 자신의 대인존재감을 통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표 8. 회피애착 매개모형 개별 간접효과 유의성 검정

경로			estimate	95% 신뢰구간	
				low	upper
남 회피 애착	→	남 대인존재감 → 남 결혼만족	-.160***	-.266	-.077
	→	여 대인존재감 → 남 결혼만족	-.001	-.029	.014
	→	여 대인존재감 → 여 결혼만족	-.015	-.069	.010
	→	남 대인존재감 → 여 결혼만족	-.056	-.144	.019
여 회피 애착	→	여 대인존재감 → 여 결혼만족	-.073	-.169	.007
	→	남 대인존재감 → 여 결혼만족	-.010	-.049	.003
	→	남 대인존재감 → 남 결혼만족	-.027	-.083	.014
	→	여 대인존재감 → 남 결혼만족	-.005	-.074	.064

주. 남=남편, 여=아내, 숫자는 비표준화 계수임.

***p<.001

IV. 결론 및 논의

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현재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10년 이하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의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대인존재감의 매개효과 동시에 자기효과, 배우자 효과를 알아보고 궁극적으로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과 아내 각각 불안애착, 회피애착과 대인존재감,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남편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본인의 결혼만족과 본인의 대인존재감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아내 대인존재감에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아내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본인 결혼만족과 본인의 대인존재감에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남편의 결혼만족과 대인존재감에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아내와 남편 모두 자신의 결혼만족에 대인존재감이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부적 상관을 보인다고 밝힌 선행연구들과 같은 결과이다(이원주, 2018; 김수민, 이지연, 2015; 최영아, 박경, 2015; 오현주, 최승미, 조현, 권정혜, 2012).

둘째, 부부의 불안애착과 대인존재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효과

와 배우자 효과를 보기위해 등가제약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불안애착 모형에서 12개 경로 중 5개의 경로에서 차이가 났다. 불안애착이 대인존재감에 미치는 영향이 남편에게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편의 불안애착이 자기효과인 자신의 대인존재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자신의 불안애착이 자신의 결혼만족도를 낮추고 자신의 대인존재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애착이 대인존재감에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며(송가미, 박희현, 2016; 임운선, 2013), 대인존재감이 심리내적 안녕 감으로서 로맨틱한 이성 관계 만족에 부분매개 한다는 Leanne 등(200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아내 불안애착의 경우 대인존재감이 결혼만족도에 정적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배우자로부터 경험하지 못할 때, 배우자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대인존재감을 경험하고자 노력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대인존재감 변인에 영향을 주는 대상이 남편이 아닌 주요한 타자일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내의 대인존재감 변인은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셋째, 부부의 회피애착과 대인존재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효과와 배우자 효과를 보기위하여 등가제약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회피애착 모형에서는 12개 경로 중 3개의 경로에서 차이가 났다. 남편의 경우 자신의 회피애착이 자신의 대인존재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남편 자신의 대인존재감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아내는 자신의 회피애착이 자신의 대인존재감에만 부적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의 애착보다 자신의 애착유형이 결혼만족도와 더욱 관계되고, 특히 자신의 불안정애착에 의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Feeney, Judith A., Patricia Noller, and Victor J. Callan, 1994). 김수민, 이지연(2015)의 연구에서 회피애착이 결혼만족도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음을 보고하였는데 회피애착의 경우 배우자에게 받는 부정적인 경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배우자보다 자신을 더욱 의지하고 물리적,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게 됨으로써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부부의 불안애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대인존재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8개의 간접효과 경로 중 1개의 경로에서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남편의 대인존재감이 남편의 불안애착과 남편 결혼만족도에 매개하는 자기효과가 나타났다. 남편 매개효과 결과의 경우 결혼만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김민선, 심희천, 2011; 박영화, 고재홍, 2005)에서 자신의 특성을 매개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

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남편과는 다르게 아내의 경우 아내 대인존재감이 아내 불안애착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매개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아내의 불안애착의 경우 매개변인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보다 아내 자신의 불안애착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더 큰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이원주, 2018; 이윤정, 2016),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다섯째, 부부의 회피애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대인존재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8개의 간접효과 경로 중 1개의 경로에서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남편의 대인존재감이 남편의 회피애착과 남편 결혼만족도에 매개하는 자기효과가 나타났다. 남편과는 다르게 아내의 경우 아내의 대인존재감이 아내 회피애착과 아내 결혼만족도에 매개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오현주(2012)의 연구에서 회피애착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심리내적 변인보다 의사소통 변인이 더 강한 매개효과를 보임으로써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변인이 남편과 다를 것을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내의 경우 대인관계 변인이 결혼만족도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남편의 경우 심리내적 변인에 더 크게 영향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남편은 자신의 성인애착이 대인존재감에 부적영향을 주고 대인존재감이 결혼만족도에 정적영향을 미쳐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변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아내는 자신의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에서 대인존재감만으로는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다른 주요 변인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아내의 경우 자녀출산이후 부부중심의 상호작용이 자녀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적어지며 부부관계가 소홀해지게 된다(박정윤, 2015). 최근 남편의 양육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적으로 양육과 가사는 어머니의 역할로 여겨지고 있다(심가가, 2016). 따라서 아내는 남편과의 대인존재감보다 자녀의 양육몰입과 자녀와의 친밀한 애착형성(황현주, 정옥분, 2006)으로 인한 결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부부는 자신의 애착유형이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자신의 애착유형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쳤다. 강도경(2019)의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기효과는 유의미한 반면 상대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음을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애착 유형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자는 대인존재감을 측정할 때 배우자가 포함될 것

이라 예측하였지만 연구 결과 배우자 이외 주요 타자에 의한 대인존재감이 측정된 결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대인존재감 측정도구가 부부간의 대인존재감을 측정하지 못한 한계점으로 인한 결과로 생각해볼 수 있다.

V. 연구의 의의 및 제언

1. 연구의 의의 및 제언

가. 연구의 의의

본 연구 결과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부를 한 쌍으로 표본을 모집하고 부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부부의 성인애착(불안애착, 회피애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대인존재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APIM의 확장모델인 APIMeM(Ledermann, Thomas, Siegfried Macho, and David A. Kenny, 2011)을 활용하여 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봄과 동시에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불안애착, 회피애착이 대인존재감을 매개로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불안애착, 회피애착 각각 8개의 간접효과 경로 중 1개의 경로 즉 남편 자신의 결혼만족도에만 간접효과가 나타났으며 아내의 불안애착, 회피애착 모든 경로에서는 간접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매개변인인 대인존재감이 남녀 각각의 결혼만족도에 서로 다른 영향이 있음을 밝혀낸 것에 의의가 있으며, 아내의 대인존재감과 결혼만족도 사이에 다른 주요 변인이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나.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대인존재감, 결혼만족도 모두 피험자들의 자기보고를 통해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차후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척도의 오류와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성인애착을 측정하는데 사용한 ECR-R은 타당화되고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측정도구이지만, 성인애착을 애착불안과 애

착회피라는 불안정애착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대인존재감의 촉진요인인 안정애착을 측정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애착을 범주로 구분하는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애착유형에 따라 대인존재감의 수준의 차이와 결혼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편중되어 있다.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결혼기간이 10년 이하로, 우리나라의 모든 부부들을 대표하여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환경(지역, 결혼기간, 학력 등), 다양한 연령층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부상담 및 가족 상담에서 적용 가능한 상담절차를 마련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자기효과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부부 상담에서 개인이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과의 관계를 증진한 후에 부부 내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부부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상담절차를 마련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강도경(2019). 성인 애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정혜, 채규만(1999).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1.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8(1), 123-139.
- 김민선, 신희천(2011). 언어적 역제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구-철회 의사소통패턴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35-49.
- 김성현(2004).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장적 요인분석과 문항 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민, 이지연(2015). 기혼 여성의 불안정 애착유형과 결혼만족도와 관계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과 부정적 갈등해결 전략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1), 251-264.
- 김진경(2014). 부모기 전이에 남편의 양육참여와 부인의 결혼만족도간 관계-자기효능감과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복지연구*, 12(1), 1-17.
- 김희진(2004). 한국 부부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5(3), 839-853.
- 나남숙, 이인수(2017). 자기분화, 결혼만족도, 헌신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적용. *가족과 가족치료*, 25(1), 115-136.
- 박수선(2013). 신혼기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건강가정지원센터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1), 85-98.
- 박영화, 고재홍(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65-83.
- 박정윤(2015). 가족생활주기별 부부관계신념 지각, 유사성, 적용이 부부간 긍정적 행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가족치료*, 23(2), 335-362.
- 송가미, 박희현(2016). 직장인의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능력의 관계에서 대인존재감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23(3), 113-131.
- 심가가(2016).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의 양육생태 분석.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현주, 최승미, 조현, 권정혜(2012). 회피애착이 신혼기 부부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 및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3), 525-546.

- 우수정, 이영(2010).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양육협력의 매개효과 검증.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8(7), 89-97.
- 유수진, 류정희(2017).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적 대처의 중다매개효과. *교육치료연구*, 9(2), 309-327.
- 이경인, 허난설, 최수미(2017).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남녀대학생의 성적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성인애착과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4), 551-567.
- 이원주(2018). 중년기 부부의 애착과 결혼만족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델. *한국상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정(2016). 중년 부부의 성인애착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훈구(2004).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에 관한 개관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2), 47-53.
- 이훈구(2004).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에 관한 개관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 47-53.
- 이희숙, 박경(2008). 성인애착과 결혼만족 간의 관계: 보살핌과 성적 친밀감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3), 671-689.
- 임윤선(2012). 성인애착이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 존재감과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아, 김봉환(2010). 성인애착, 공감능력 및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인간이해*, 31(1), 89-104.
- 정문경, 김병석(2014). 마인드풀니스, 정서조절, 지각된 배우자지지, 결혼만족간의 구조적 관계. *상담학연구*, 15(1), 499-519.
- 조아라, 오제은(2014). 미혼여성이 연애경험 중 인식하는 아버지와의 관계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479-503.
- 최경일(2019). 영유아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기-상대방 효과 모델 (APIM) 활용. *디지털융복합연구*, 17(5), 417-423.
- 최영아, 박경(2017).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혼불만족 간의 관계: 자기대상과 정신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치료학회지*, 9(1), 49-79.
- 최한나, 임윤선(2013). 한국판 대인존재감 척도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4(3), 1699-1715.
- 통계청(2016). 2016년 혼인·이혼 통계.
- 현미나, 채규만(2012).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정서조절 곤란의

-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4), 69-85.
- 황현주, 정옥분(2006).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과 관련 변인. 인간발달연구, 13(4), 95-115.
- Bartholomew, K. (1990). Avoidance of intimacy: An attachment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2), 147-178.
- Butzer, B., & Campbell, L. (2008). Adult attachment, sexual satisfact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A study of married couples. *Personal relationships*, 15(1), 141-154.
- Collins, N. L., & Feeney, B. C. (2000). A safe haven: An attachment theory perspective on support seeking and caregiving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6), 1053.
- Elliott, G., Kao, S., & Grant, A. M. (2004). Mattering: Empirical validation of a social-psychological concept. *Self and Identity*, 3(4), 339-354.
- Feeney, J. A., Noller, P., & Callan, V. J. (1994). Attachment style, communication and satisfaction in the early years of marriage.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350.
- Kashy, D. A., & Kenny, D. A. (2000). The analysis of data from dyads and groups.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i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38, 451-477.
- Ledermann, T., Macho, S., & Kenny, D. A. (2011). Assessing mediation in dyadic data using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8(4), 595-612.
- Mak, L., & Marshall, S. K. (2004). Perceived mattering in young adults'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1(4), 469-486.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3). The attachment behavioral system in adulthood: Activation, psychodynamics, and interpersonal processe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5, 56-152.
- Ponnet, K., Mortelmans, D., Wouters, E., Van Leeuwen, K., Bastaits, K., & Pasteels, I. (2013).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relationship as determinants of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Personal Relationships*, 20(2), 259-276.

- Raque-Bogdan, T. L., Ericson, S. K., Jackson, J., Martin, H. M., & Bryan, N. A. (2011). Attachment and mental and physical health: Self-compassion and mattering as mediat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2), 272-278.
- Snyder, D. K. (1979).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813-823.

〈Abstract〉

The Relation of Adult Attach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s of Mattering - Actor effect and Partner effect -

Heo, Min-young-Hong, Hye-Young
Myongji University-Myongj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mattering, the actor effect, and the partner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rried couple's adult attachment(anxiety attachment, avoidance attach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To this end, this study used the APIMeM(Actor and Partner Interdependence Mediation Model) for the analysis method.

The study was conducted on 262 married couples who are currently married in Seoul, Chungnam, Gyeonggi, Cheonan, and Gangwon, an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husband's anxiety attachment and avoidance attachment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his marital satisfaction and his mattering, and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wife's mattering. The wife's anxiety attachment and avoidance attachment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her marital satisfaction and her mattering, and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husband's marital satisfaction and mattering. Both wife and husband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mattering in their marital satisfaction. Second, the husband's anxiety attachment model and avoidance attachment model, and the wife's avoidance attachment model showed significant actor effects on the path from the independent variable to the meditation variable and from the meditation variable to the dependent model. And the wife's anxiety attachment model showed significant actor effects, on

the path from the independent variable to the meditation variable and from the independent variable to the dependent variable. Third, the husband's mattering showed an actor effect that does a partial medi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is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attach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Through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mattering, the mediating variable, is a variable that increases the husband's marital satisfaction, and that the variables that significantly affect the marital satisfaction differ depending on the husband and the wif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ion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attachment, mattering, marital satisfaction, actor effect, partner effect, APIMeM

〈별첨 1〉

통합치료연구 연구 윤리 관련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통합치료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과 관련된 연구 활동의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 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자의 정직성) ① 연구자는 본인이 수행하는 연구과정 전반에 걸쳐 모든 과정을 정직하게 수행해야 한다. 연구과정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디자인의 설계, 연구 참여자에 대한 보호, 결과의 분석, 연구 참여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이 포함된다.

② 연구자는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중복 게재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③ 본 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연구자는 연구 수행 시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기관과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해야 한다.

제3조 (연구자의 의무) ①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 과정, 및 결과보고 등의 연구전반에 걸친 활동을 정직하고 진실 되게 수행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활동 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판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 한다.

③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 활동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존중한다.

제4조 (연구 부정행위) 본 학회의 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학회지 발간 이후 적발 시에는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①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물을 기록하고 보고하는 행위

② 변조: 연구결과물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③ 표절: 본인이나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물을 원저자 승인 없이 인용, 또는 참조

없이 도용 하는 행위

- ④ 중복게재: 1) 연구자는 국내·외 타 학회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거나 발표 예정인 연구물을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수 없다.
2) 연구자는 국내·외 타 학회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거나 발표 예정인 연구물을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신청할 수 없다.

제5조 (연구 참여자 보호) 연구자는 각자의 연구 활동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신적, 신체적 위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 시행 전 반드시 연구 참여자 또는 법적 대리인에게 연구 절차와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동의를 받는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학회장과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학회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이사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이 심의대상자아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당 심의 건에 대한 위원자격을 상실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여 그 임기를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연구윤리심의규정) 윤리위원회는 아래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며, 그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①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심의
② 본 학회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사항 심의
③ 연구의 진실성 검증, 검증 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④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와 심의대상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

제8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 ②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결과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행위 심의 대상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해당 연구 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 2) 해당 연구자의 논문 투고 3년간 금지
- 3)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 4)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 5) 제명
- 6)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심의대상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첨 2〉

투고규정

가. 투고논문의 범위는 놀이치료, 상담심리, 언어치료, 예술심리치료, 음악치료 및 심리상담적 이론과 접근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시각의 연구 및 관련 주제를 다룬 국문 또는 영문 논문으로서 투고자격은 회원으로 한다. 단, 논문 등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여타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나. 투고논문 제출은 e-mail을 통해 파일을 전송한다. 원고작성 시 투고규정에서 정한 “논문 작성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다. 원고분량은 논문작성지침에 의거한 규격용지 기준 국문원고 15매, 영문원고 20매로 제한한다.

라.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를 저자표기 가장 앞부분에, 나머지 연결저자는 논문집필의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표기한다.

마. 투고 시 원고 겉면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 e-mail을 포함한 연락처를 명기하며,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바. 투고논문은 다른 간행물, 논문집 등에 발표되지 않은 창작물이어야 하며, 제출된 논문은 『통합치료연구』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불가판정 논문에 한해서는 일체의 심사내용을 통보하지 않는다.

사. 투고시 심사비 8만원(급행논문 심사비 12만원), 게재 확정시 10만원(15쪽 기준)을 납부하며 15쪽(본 학술지의 편집기준)을 초과한 경우 인쇄쪽당 1만원씩 추가 납부한다.

아. 본 학술지 원고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접수가 불가하다.

자. 『통합치료연구』 는 연2회 발간(2월 25일, 8월 25일)하고 있다.

차. 논문의 인쇄 용 최종 원고를 제출하는 경우 이 논문의 저작권(디지털 저작권 포함)과 전송권은 학회로 귀속된다.

〈별첨 3〉

논문 작성 요령

[통합치료연구] 투고 논문 작성 양식

1. 원고 작성 개요

가. 작성 도구: 한글 3.0 이상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나. 논문원고 용지

(1) 용지 종류: 사용자 정의(190×260)

(2) 용지 여백: 위쪽 18, 아래쪽 20, 왼쪽 26, 오른쪽 26, 머리말 10, 꼬리말 10, 제본 0

다. 문단 모양 : 줄간격 170

라. 글자 모양

	글꼴	크기	장평	자간	문단정렬	비고
제목	신명조	18p	100	0	가운데	진하게
저자명	중고딕	10p	100	0	오른쪽	1줄 띄고
소속	신명조	9p	100	0	오른쪽	
요약	중고딕	9p	95	-5	양쪽정렬	1줄 띄고 줄간격 140 좌우여백 :4
본문	신명조	11p	95	-5	양쪽정렬	
그림	중고딕	10p	95	-5	하단 가운데	출처 9p 중고딕 그 외 설명 9p 신명조
표	중고딕	10p	95	-5	왼쪽상단	출처 9p 중고딕 그 외 설명 9p 신명조
참고문헌 제목	견명조	14p	95	-5	가운데	
참고문헌 내용	신명조	9p	95	-5	양쪽정렬	
영문초록 제목	신명조	14p	95	-5	가운데	진하게
영문초록 내용	신명조	9p	95	-5	양쪽정렬	
부록제목	중고딕	10p	95	-5	왼쪽	진하게
부록내용	신명조	10p	95	-5	양쪽정렬	

마. 제목의 번호 붙임

- 1단계: I. II. III. (2줄 띄고, 14p, 견명조, 가운데)
- 2단계: 1. 2. 3. (1줄 띄고 3칸에서 시작, 11p, 중고딕, 진하게)
- 3단계: 가. 나. 다. (1줄 띄고 3칸에서 시작, 11p, 신명조, 진하게)
- 4단계: (1) (2) (3) (1줄 띄고 4칸에서 시작, 11p, 중고딕)
- 5단계: ㄱ. ㄴ. ㄷ. (4칸에서 시작, 9p, 신명조)
- 6단계: (ㄱ) (ㄴ) (ㄷ) (4칸에서 시작, 9p, 신명조)

바. 들여쓰기

문단의 첫 문장은 3칸에서 시작, 문장과 문장 사이는 1칸으로 하고, 문단과 문단사이
는 1줄 띄지 않는다(“참고문헌”의 들여쓰기는 9칸에서 시작함).

사. 용어의 사용

- (1)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적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용
어가 처음 나왔을 때 () 속에 원어나 한자를 쓴다.
- (2) 세 개 또는 그 이상의 관련성 있는 단어를 연속하여 나열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단어 바로 앞에 쉼표 없이 “그리고”, “와(과)”, “및”, “혹은” 등을 삽입한다.

2. 인용 사항

본문에 인용문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단어 및 구두점 등의 모든 사항이 인용되는 원문
과 일치되어야 하며, 그 인용부분의 길이에 따라 다음 규정을 지킨다.

가. 인용내용이 짧은(1-2행) 경우 에는 본문 속에 인용부호(“ ”)를 사용하여 기술하며,
인용내용의 끝에 인용출처(저자, 출판년도)를 밝힌다. 한 문장 내에서 내용을 축약하는
경우에는 반 칸을 띄운 후에 세 개의 공간점“...”을 사용한다.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홍길동, 2003)

나. 인용내용이 긴(3행 이상) 경우 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이 경우에는, 인
용 부분의 아래와 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띄고 좌우로 각각 3글자씩들여 쓴다. 인용문
의 출처는 “저자(출판년도)”를 먼저 밝히고 인용문을 적거나, 인용문 뒤에 “저자(출판
년도)”를 표기한다.

예: 이승환(2005)은 언어병리학이 다학문적 학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

은 의견을 피력하였다. 특수교육학, 심리학, 컴퓨터공학 등의 전문인들과 협력해야 하고, 나아가 의학의 여러 분야의 전문인들과 팀을 구성해야 할 장애유형도 많다. 그래서 상호 의뢰가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

3. 각주(脚註, footnote) 와 후주(後註, endnote)

가. 각주의 사용은 금한다.

나. 그 대신, 본문에 표시하기 어려운 보충적 내용이나 설명에 한하여 후주의 사용을 허용한다. 후주를 표시하는 위치는 본문 내 해당되는 곳에 반 괄호를 붙인 어깨숫자로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그 내용은 본문의 가장 뒤, 참고문헌 바로 앞에 기술한다.

4. 본문 내의 인용문헌

가. 직접 인용의 경우: 인용부호(“ ”)를 달고 기술하며, 인용처(저자 및 발행년도)를 표기한다.

예 1: 김영옥(2003)에 의하면 “.....”

예 2: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김영옥, 2003)

나. 간접 인용의 경우 : “저자”와 “출판년도”를 아래 예들과 같이 명기하되, 출판년도 표시의 괄호 앞 어절이 한글일 경우에는 괄호를 붙여 쓰고 (단, “참고문헌”에서는 반 칸을 띄어 쓴다), 영어인 경우에는 반 칸 띄고 쓴다.

예 1:이 이론에 대하여 고도홍(2003)은.....

예 2: 이 이론에 대하여 Pinker(1975)는.....

예 3: 한 연구(고도홍, 1995)에 의하면.....

예 4: 최근의 연구(고도홍, 1995; Boone, 1990)에 의하면.....

다. 저자가 다수인 경우:

(1) 저자가 3인 이상 5인까지일 경우, 최종 저자 앞에 “및” 또는 “와/과”로 표기 한다. 또 같은 문헌이 반복 인용될 때에는 한국인인 제 1저자의 성과 이름 뒤에 “등/외”를 표기하고, 외국인은 제 1저자의 성 뒤에 et al.을 표기한다.

예 : 김수진, 윤미선 및 김정미(2002)는... 첫 인용

김수진 등(2002)은... 반복 인용

Boone, Hodson & Paden(1995)은... 첫 인용

Boone et al.(1995)은... 반복인용

(2) 6인 이상이면 제1저자만 기재하고 “000 외”나 “0000 et al.”등으로 표시한다.

5. 참고문헌 작성법

가. 참고문헌은 논문의 말미에 한, 중, 일, 기타 동양, 서양 문헌 순으로 열거한다. 서양 문헌작성의 경우 여기에서 규정한 형식 이외의 것은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양식에 따른다.

나. 저자는 저자수와 관계없이 모두 표시한다. 영문 이름의 경우에는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은 첫 글자만(예: Kim, H. K.) 표시한다.

다. 동일한 저자가 같은 해에 낸 다수의 논문을 참고했을 경우에는 출판년도 뒤에 영문 소문자를 써서 구별한다.

예: 2005a,

라. 단행본(연수회 교재, 발표회 교재 및 검사도구 포함)의 경우:

(1) 국문: 저자 또는 편집자(출판년도). 책제목. 출판사 소재지: 출판사.

예 1: 이승환(2005). 유창성장애. 서울: 시그마프레스.

예 2: 심현섭, 신문자, 이은주(2004). 파라다이스-유창성검사

(Paradise-Fluency Assessment, P-FA). 서울: 파라다이스복지재단.

(2) 영문: 저자 또는 편집자(출판년도). 책제목(이탤릭체). 출판사 소재지: 출판사.

예: Van Riper, C. & Erickson, R. L.(1996). Speech correction: An introduction to speech pathology and audiology. Needham Heights, MA: A Simon & Schuster Co.

마. 단행본 속의 논문 또는 단원(chapter)의 경우:

(1) 국문: 저자(출판년도). 논문[단원]명. 편집자[기관]명(편). 단행본명. 발행지: 발행처.

예: 김영태(2000). 조음음운장애 치료를 위한 임상이론.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편). 말·언어임상 전문요원교육: 조음음운장애 및 실어증 치료기법의 임상적 적용. 서울: 한학문화.

(2) 영문: 위와 동일하나 출처인 단행본명을 이탤릭체로 표기

아래 예와 같이 단행본저자의 이름을 표기하되, 단행본 저자가 1명인 경우에는 “(Ed.)”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Eds.)”로 표기.

예: Beeson, P. & Hillis, A.(2001).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of written words. In R. Chapey(Ed.), Language intervention strategies in aphasia and related neurogenic communication disorders(4th ed.). Baltimore, MD: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3) 단행본이 재판(再版)이상 : 단행본명 뒤의 ()안에 “3판” 혹은 “3rd ed.” 등으로 표기.

바. 정기간행물(학술지) 속의 논문의 경우:

(1) 국문: 저자(출판년도). 논문명. 논문수록 학술지명, 권(호) 번호, 페이지.

예: 장빛나, 김수지(2009). 타악기를 이용한 음악 활동이 유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8(3), 213-226.

(2) 영문: 저자(출판년도). 논문제목. 논문수록 학술지명(이탤릭체), 권(호), 페이지.

예: Kim, S. J.(2010). Music therapy protocol development to enhance swallowing training for stroke patients with dysphagia. Journal of Music Therapy, 57(2), 102-119.

사. 학위논문의 경우

(1) 국문 : 저자(출판년도). 논문제목. 학위수여대학. 학위명.

예: 김민정(2004). 아동용 한국어 조음검사의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2) 영문 : 저자(출판년도). 논문명(이탤릭체). 학위명, 학교명 및 학교소재지.

단, 석사논문은 “master's thesis”로, 박사논문은 “doctoral dissertation”으로 표기한다.

예: Sim, H. S.(1996). Kinematic analysis of syllable repetition and sound prolongation in children who stutt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owa, Iowa City.

아. 번역서의 경우

(1) 원저자명(출판년도). 번역서명[원전의 제목을 알고 있는 경우에 표기]. (역자

명). 번역서의 출판지: 번역서의 출판사명.

예 1: 정옥란(역)(1993). 음성과 음성치료. 대구: 배영출판사.

예 2: 이승복, 한기선(공역)(2000). 의사소통 과학과 장애: 과학에서 임상실습까지. 서울: 시그마프레스.

자. 연수회, 특강 또는 학술대회 자료의 경우

(1) 저자명(발표된 년도). 발표제목. 자료명. 발표장소.

예 1: 윤미선, 이봉원(2005). 한국어 어휘 특성에 따른 단어인식 검사에 대하여.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전북대학교, 전주.

예 2: Pae, S. & Yoon, H. J.(2005). Reading miscue analysis of the Korean second grader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ASHA) annual conference. San Diego, CA.

차. 기관이 저자인 경우:

(1) 국문 : 기관명을 저자로 명기(발행년도). 단행본명. 발행도시명: 기관명에 준하여 “동부”, “동 협회”, “동 학회” 등으로 표기.

예: 문화관광부(1999). 교과서의 어휘 분석연구 - 초등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서울: 동부.

(2) 영문 : 단행본명을 이탤릭체로 표기. 발행처가 저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발행도시명: 을 적은 후에 “Author”라고 표기.

예: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01).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th ed.). Washington, DC: Author.

6. 표, 그림 및 부록

가. 표, 그림 및 부록에는 일련번호를 각각 붙이되, < >를 사용한다. 표와 그림은 본문 안에 삽입하고 부록은 참고문헌 뒤에 삽입한다.

예: <표 1>, <그림 1>

나. 표 및 부록의 제목은 상단 왼쪽에, 그림의 제목은 하단 중앙에 붙인다.

다. 표, 그림 및 부록을 다른 문헌에서 인용하였을 때, 표와 부록의 경우에는 하단 왼쪽에, 그림의 경우에는 하단 중앙 제목 밑에 출처를 명기한다.

라. 부호를 사용할 때의 글씨체 및 띄어쓰기는 다음과 같다.

(1) p, F, t는 신명조체의 이탤릭체로 쓴다. 단, M, N, SD는 신명조체의 정자체

로 한다.

(2) 부호 사이는 반 칸 띄어 쓴다(예: $p < .001$, $F(1,129)=2.71$, $t=4.52$).

(3) *는 윗 첨자의 형태로 통계표 안의 t값과 표 밑의 p값을 제시할 때 쓴다.

(예: *t, *p<.05)

마. 유의확률을 나타내는 p값은 표 하단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기재한다. (예: $p=.003$)

7. 초록

가. 한글 논문의 경우

(1) 한글초록: 10줄 이내의 한 문단으로 된 한글초록(연구목적, 방법, 결과 등 포함)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앞에 첨부한다.

(2) 영문초록: 10줄 내외의 영문초록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뒤에 첨부한다.

(3) 핵심어: 3-5개의 핵심어를 한글초록과 영문초록 밑에 쓴다.

나. 영문 논문의 경우

(1) 영문초록: 10줄 이내의 한 문단으로 된 영문초록(연구목적, 방법, 결과 등 포함)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앞에 첨부한다.

(2) 한글초록: 1쪽 이내의 한글초록(한글제목, 한글이름, 한글소속 포함)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뒤에 첨부한다.

(3) Key Words: 3-5개의 핵심어를 영문초록과 한글초록 밑에 쓴다.

〈별첨 4〉

한국통합치료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통합치료학회(The Korean Society of Interdisciplinary Therapy)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음악, 언어, 놀이, 가족, 상담심리, 예술심리의 이론과 실재를 연구함으로써 한국 치료학의 발전 및 회원의 학문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위치) 본 학회의 사무소는 당해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업) 본 학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 및 발표
2. 심리적, 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연구 활동
3. 학술지 발간
4. 학회발전을 위한 교육
5. 국내외 학회와의 유대
6. 회원의 권익보호 및 친목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심리치료, 놀이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가족 치료, 예술심리치료 또는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평생회원, 일반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준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관련 전공 석사과정 중인 자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정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석사학위 소유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평생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자격관리 위원회의 심사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4. 기관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으로서 정회원이 운영 재직하는 기관 및 치료전문기관으로서 본 회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 한다.

제7조 (입회 절차) 본 학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 원서 제출과 함께 입회비를 납부하고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권리
2.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
3.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권리
4. 본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5. 본 학회의 각종 출판물을 받을 권리
6. 기타 학회에서 인정한 권리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참석 및 회칙을 준수할 의무
2. 본 학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3. 본 학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4.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10조 (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제명)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

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으로써 학회의 회장이 제명한다.

제12조 (회원의 자격 정지) 2년 이상(당해 연도 제외) 회비가 체납된 회원은 체납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제3장 임 원

제13조 (임 원)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1명
3. 총무 : 1명
4. 감사 : 2명
5. 학술위원장 : 1명
6. 학제 간 연구위원장 : 1명
7. 편집위원장 : 1명
8. 국제교류위원장 : 1명
9. 윤리위원장 : 1명
10. 홍보위원장 : 1명

제14조 (임원의 임기)

1.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기타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3.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하여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총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관장하며 학회를 책임 운영한다.
4.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총회에 보고하는 일

제4장 기 구

제18조 (기구의 종류)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 회
2. 운영위원회
3. 상임위원회

제19조 (총회)

1. 총회는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보고
 - 4) 규약 및 제 규정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는 주요안건
2. 총회는 그 기능의 일부를 총회 의결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학술위원장, 학제 간 연구위원장, 편집위원장, 국제교류위원장, 윤리위원장, 홍보위원장으로 구성 한다.
2.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 1) 회장과 감사를 총회에 추천한다.

- 2) 준회원, 정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의 자격을 심사 및 승인한다.
 - 3) 각종 규정 및 지도감독을 한다.
 - 4) 중요사업을 계획, 심의한다.
 - 5) 정관의 개정을 총회에 건의한다.
 - 6) 본 학회의 운영을 총괄 조정한다.
 - 7) 기타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3.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4. 기타 운영위원회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5. 제 20조의 모든 사항은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단,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정족수에 포함한다.

제21조 (상임위원회)

1. 편집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학술지 발간 및 학술발표, 세미나 등 주관 및 교육
2. 국제교류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국제 교류 및 협력 주관 및 관리
3. 학제 간 연구 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음악, 언어, 놀이, 가족, 상담심리 등의 다양한 치료분야간의 통합치료모델 연구
4. 홍보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대외협력 및 홍보
5. 학술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학술발표, 세미나, 교육특강 등 주관 및 교육

제5장 회 의

제22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갖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에서 투표권은 정회원, 평생회원에게 있다.

제23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 평생회원의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 단,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정족수에 포함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평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 (총회의 특례)

1. 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운영위원회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5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재 정

제26조 (재정)

1.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 학회운영 수익, 및 기타 찬조비 등으로 충당한다.
2. 회원 자격별 회비(입회비, 연회비, 및 평생회비 등)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본 학회 회원으로서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자격은 회비 납부시까지 정지되며, 미납회비(당해 연도를 포함한 3년분 미납 연회비)의 납부와 동시에 회원 자격이 회복된다.

4.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연회비가 면제된다.
5. 본 학회 재정의 모든 입출금은 본 학회가 보유한 은행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27조 (회계년도)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 본 정관은 2015년 3월 23일부로 시행한다.
3. 본 개정은 2017년 3월 23일부로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선우현(명지대학교)
편집위원 : 노남숙(명지대학교)
최예린(명지대학교)
손보영(선문대학교)
이아라(경상대학교)
이상진(평택대학교)
박정환(제주대학교)
서근원(대구카톨릭대학교)
임지숙(명지대학교)

통합치료연구 제11권 제2호

2020년 2월 25일 인쇄

2020년 2월 25일 발행

발행인: 홍혜영 (한국통합치료학회장)

(우) 03674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경상관 4715호

Tel: 02-300-0899

E-mail: ksit@naver.com / ksit_journal@naver.com

인쇄처: 금성인쇄
